내신 기출

국어 천재 박영목 (1학기)

총력만능국어
www.chongmangug.co.kr
[교재 구입]

<<내신 기출 국어 천재 박영목>>

◆차례◆

1. 마음을 담은 언어

⑴ 언어 예절과 화법의 다양성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1쪽 (39문제)

⑵ 소통하는 글쓰기

영훈이의 역사 누리방_학생 글----------18쪽 (22문제)

2. 능동적 읽기와 주체적 해석

⑴ 사회적 대화로서의 글 읽기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_정기용----------29쪽 (40문제)

⑵ 자신의 관점에서 문학 작품 읽기

허생전_박지원----------48쪽 (51문제)

⑶ 독서 과정을 성찰하며 책 읽기

초신성의 후예_이석영----------77쪽 (29문제)

3. 우리말 바로 쓰기

⑴ 올바른 발음과 표기----------91쪽 (61문제)

⑵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108쪽 (65문제)

⑶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이란 무엇인가----------126쪽 (6문제)

4. 문학의 갈래와 구조

⑴ 향수_정지용----------131쪽 (50문제)

⑵ 종탑 아래에서_윤흥길----------149쪽 (58문제)

⑶ 두근두근 내 인생_김애란 원작 / 최민석 외 각본-----182쪽 (41문제)

⑷ 수오재기_정약용----------205쪽 (43문제)

5. 매체와 설득

⑴ 매체 자료 바로 읽기

매체 자료, 어떻게 읽어야 할까----------224쪽 (14문제)

⑵ 설득하는 글 쓰기

나와 지구를 위해 손수건을 사용합시다_학생 글--------231쪽 (10문제)

▶정답 ----------237쪽

▶해설 ----------241쪽

(버전: 2020.03)

4-(1) 향수

[1] 서정 갈래의 개념과 특성

개념	• '노래하기'의 표현 양식 • 화자의 주관적인 사상과 정서를 함축적이며 운율이 있는 언어로 형상화하는 문학의 한 갈래
특성	• 말소리나 어구, 음보, 글자 수 등이 반복되면서 운율이 형성됨. • 감각과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심상이 쓰임. • 비유, 상징, 반어, 역설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이 쓰임. • 함축적 의미를 지닌 시어가 사용됨.
구성 요소	• 화자, 정서, 운율, 심상, 시어 등 • 표현 방법(비유, 상징, 반어, 역설 등)

[2] 제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향토적, 묘사적, 감각적
제재	고향의 추억	**주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
특징	①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을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② 토속적인 소재와 향토적인 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③ 후렴구가 반복되는 병렬식 구조로 구성하고 있다.		
구성	**[1연]** 평화롭고 한가한 고향 마을의 정경 **[2연]** 겨울밤의 정경과 늙은 아버지의 모습 회상 **[3연]** 꿈 많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 **[4연]** 어린 누이와 아내의 모습 회상 **[5연]** 단란한 고향 마을의 정겨운 모습		

< >의 짜임

1, 3, 5연		2, 4연
평화롭고 아름다운 꿈이 서려 있는 고향	+	가난하고 고단한 삶의 모습이 담긴 고향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 시의 배경과 화자가 떠올리는 대상

연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대상
1연	해설피	넓은 벌, 실개천	고향의 풍경
2연	밤바람	질화로, 짚베개	늙으신 아버지
3연	이슬	풀섶	과거의 화자
4연	따가운 햇살	이삭 줍던 곳	어린 누이와 아내
5연	성근 별, 흐릿한 불빛	초라한 지붕	가족들

■ 시에 사용된 감각적 심상과 표현 방법

감각적 심상	**시각적**	얼룩백이 황소, 파아란 하늘빛,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성근 별, 흐릿한 불빛
	청각적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 서리 까마귀 우지짖고, 도란도란거리는
	촉각적	풀섶 이슬에 함초롬 휘적시던, 따가운 햇살
	공감각적	금빛 게으른 울음,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표현 방법	**의인법**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
	설의법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직유법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

■ 작품의 구성 요소와 전체의 유기적 관계

[시적 화자]
고향을 떠나와 그리워함.

→

시 <향수>

←

[표현 방법]
묘사 비유, 상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함.

↗ ↑ ↖

[후렴구의 반복]
운율을 형성하고 시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함.

[감각적 심상]
고향의 풍경을 생생히 전함.

[토속적 시어]
향토적 정감을 불러일으킴.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조름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아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섶 이슬에 함초롬 휘적시던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전설(傳說)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 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A]서리 까마귀 우지짖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어 도란도란거리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 정지용, 「향수」

권선고등학교 (경기)

1. 시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적 정경과 화자의 내면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② 고향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삶과 가난하고 고단한 삶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③ 2,3,4연은 화자를 포함한 그 가족들이 중심인물로 설정되어 제시되고 있다.
④ 각 연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향의 정경을 대조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⑤ 실개천, 황소, 질화로 등 소박하고 정겨운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시어들을 사용하였다.

권선고등학교 (경기)

2. 다음 글을 참고할 때, 윗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20년대의 감상적 낭만주의 시나 민요시 또는 카프의 경향시와 달리 정지용은 자신의 작품에서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시를 창작하였다. 특히 시어를 선택하고 대상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 중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형식을 찾으려 노력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① ㉠은 '낮은 소리로 자꾸 지껄이는'의 뜻으로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흐르는 '시냇물'의 동적인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은 '밤바람 소리'라는 청각적 심상을 '말을 달리고'라는 시각적 심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시각의 청각화 같은 감각의 전이를 통해 밤바람 소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③ ㉢은 '파란'의 음절 수를 늘려 표현한 시적 허용을 통해 '하늘'의 상태를 부각하여 드러내고 있다.
④ ㉣은 '~ 같은' 직유법을 통해 '검은 귀밑머리'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⑤ ㉤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간이 경과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권선고등학교 (경기)

3. 윗글을 감상하고 정리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배경	대상	내용정리
① 1연	넓은 벌	실개천, 황소	평화롭고 여유로운 고향의 모습
② 2연	겨울밤	아버지	늙으신 아버지의 고단한 모습
③ 3연	풀섶	어린 나	어린 시절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
④ 4연	들판	누이	가난하고 고단한 농촌의 삶이 드러남
⑤ 5연	늦가을	가족	단란하고 정겨운 가족의 모습

권선고등학교 (경기)

4. ㉮에 쓰인 심상이 표현되지 않은 시는?

① 머리맡에 찬물을 쏴– 퍼붓고는
그만 가슴을 디디면서 멀리 사라지는 북청 물장수
② 그 푸른 물소리에 귀를 씻고 입을 헹구고
푸른 댓가지가 후려치는 회초리도 몇 대 아프게 맞으며
③ 산 아래 콩밭에 뿌려 둔 노래를 쪼아
아름다운 목청 밑에 갈무리한다.
④ 즐거운 지상(地上)의 잔치에
금(金)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⑤ 그 위에 셀루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권선고등학교 (경기)

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나열적인 앞의 내용들에 대해 통일감을 부여한다.
② '잊힐 리야'와 같은 설의적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③ 고향 정경에 대한 시적 화자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시상을 매듭지으며 각 단계의 의미가 인과관계로 긴밀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⑤ '그곳이'와 같은 구절을 통해 각 연의 '–는(던) 곳'으로 끝나는 부분과 조응을 이룬다.

권선고등학교 (경기)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저물어 오는 육교 우에
한 줄기 ⓐ황망한 기적을 뿌리고
ⓑ초록색 램프를 달고 화물차가 지나간다

ⓒ어두운 밀물 위에 ⓓ갈매기떼 우짖는
바다 가까이
정거장도 주막집도 헐어진 나무다리도
온–겨울 눈 속에 파묻혀 잠드는 고향

산도 마을도 포플라 나무도 고개 숙인 채
ⓔ*호젓한 낮과 밤을 맞이하고
그 곳에

[B] 언제 꺼질지 모르는
조그만 생활의 촛불을 에워싸고
해마다 가난해 가는 고향 사람들

낡은 *비오롱처럼
바람이 부는 날은 ⓕ서러운 고향
고향 사람들의 한 줌 희망도
진달래빛 노을과 함께
한 번 가고는 다시 못 오기

저무는 도시의 옥상에 기대어 서서
내 생각하고 눈물지움도
한 떨기 ⓖ들국화처럼 차고 서글프다

– 김광균, 「향수」

*호젓한 : 쓸쓸하고 외로운.
*비오롱 : 바이올린.

(1) [A], [B]에 나타난 고향의 공통적인 모습을 '~이다'의 형식으로 쓰시오.
(2) [B]에 쓰인 '촛불'이 의미하는 것을 한 단어로 쓰시오.
(3) ⓐ ~ ⓖ 중에서 '얼룩백이 황소'에 나타나는 심상과 같은 것을 모두 찾아 기호로 쓰시오.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아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섶 이슬에 함초롬 휘적시던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전설(傳說)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 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짖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어 도란도란거리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 정지용, '향수'

부명고등학교 (경기)

7. 각 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분	내용
① 1연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고향의 모습
② 2연	겨울밤의 정경과 늙은 아버지의 모습
③ 3연	꿈 많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
④ 4연	어린 누이와 아내의 모습을 회상
⑤ 5연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았던 고향집

부명고등학교 (경기)

8. 다음을 참고하여 ㉮에서 일어난 것과 동일한 '감각의 전이'가 일어난 것은?

'감각의 전이'는 하나의 감각적 대상을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전이시켜 표현하는 이미지를 말한다.

①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②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 윤동주, '자화상'

③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 김광균, '와사등'

④ 해와 하늘빛이 / 문둥이는 서러워 //
보리밭에 달 뜨면 / 애기 하나 먹고 //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 서정주, '문둥이'

⑤ 온 몸에 햇볕을 받고 깃발은 부르짖고 있다.
보라, 얼마나 눈부신 절대의 표백인가.
우러러 감은 눈에는 불꽃인 양 뜨거워라.

– 이호우, '깃발'

부명고등학교 (경기)

9.<보기>는 위 시를 읽은 학생의 감상문이다. ㉠~㉤ 중 감상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이 시는 일제에 의한 지배가 한창이던 1923년 3월, 정지용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기 직전 지은 시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낯선 타국으로 떠나기 전에 시인의 마음 속에 담아두었던 ㉠고향의 모습을 그리운 향기들로 표현하는 후각적 심상이 눈에 띈다. 또한 고향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짚베개', 함초롬' 등 토속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각 연의 끝에 배치된 동일한 후렴구는 시의 리듬감을 배가시키는 효과와 동시에 ㉢설의적 표현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간절히 드러낸다.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속에 ㉣순우리말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대신 한자어를 다수 사용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서정문학의 주된 구성 요소인 화자, 사건, 운율, 심상 등이 조화를 이루어 효과적으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아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섶 이슬에 함초롬 휘적시던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전설(傳說)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 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짖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어 도란도란거리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 정지용, <향수>

부평고등학교 (인천)

1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드러내고 있다.
② ㉡ : 시 내용과는 관련이 적은 후렴구의 반복을 통해 음악적 요소만을 극대화하고 있다.
③ ㉢ : 두 개의 심상이 어우러져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④ ㉣ : 시·공간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를 통해 화자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⑤ ㉤ : 원관념을 보조하는 대상에 비유하는 표현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부평고등학교 (인천)

11. 윗글의 시어(구)가 형상화하는 의미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어(구)	시어(구)의 의미	판단 근거
ⓐ	해설피	고향의 모습	고향의 시간을 추억함.
ⓑ	짚베개	고향과 아버지를 추억함.	향토적 시어를 활용함.
ⓒ	함부로 쏜 화살	과거의 행동에 대해 반성함.	거침없고 자유분방한 시어를 활용함.
ⓓ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화자가 그리워하는아내로 투박한 농촌 여인을 의미함.	당시 남성들은 아내에게 무뚝뚝하게 표현하는 시대였음
ⓔ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가난하지만 단란한 가족의 모습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활용함.

① ⓐ ② ⓑ
③ ⓒ ④ ⓓ
⑤ ⓔ

부평고등학교 (인천)

12.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

산 꿩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 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머언 항구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뫼 끝에 홀로 오르니
흰 점 꽃이 인정스레 웃고,

4-(2) 종탑 아래에서

[1] 서사 갈래

개념	• '이야기하기'의 표현 양식 • 서술자를 통해 인물, 사건, 배경 등으로 이루어진 허구의 세계를 형상화하는 문학의 한 갈래
특성	• 현실을 반영하여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로 꾸며 냄. • 고유한 개성을 가진 인물이 배경 속에서 사건의 주체로서 행동함. • 갈등을 중심으로 하여 사건이 전개됨. • 서술자가 사건을 전달함.
구성 요소	인물, 사건, 배경, 문체, 시점, 서술자 등

[2] 제재 정리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액자 소설 (*교과서에는 내부 이야기만 수록 됨.)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성격	사실적, 상징적, 향토적
배경	(시간) 한국 전쟁, (공간) 전북 익산 시내
주제	전쟁의 상처와, 사랑과 연민을 통한 상처의 치유
특징	① 전쟁의 폭력으로 비롯된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을 제시함. ② 소년과 소녀를 등장시켜 전쟁의 참혹함을 드러냄. ③ 구체적인 지명과 사투리를 사용해 작품의 사실감을 높임. ④ '백마 이야기'를 삽입하여 인물의 상황과 주제를 부각함.

< 아래에서>의 구성

발단	'나'가 어느 봄날 익산 군수 관사에서 '명은'을 처음 만남.
전개	'나'와 '명은'은 만남을 이어 가고,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종소리를 계기로 화해함.
위기	'나'와 '명은'은 함께 교회에 가서 종소리를 듣고, '명은'이 '나'에게 직접 종을 치게 해 달라고 부탁함.
절정-결말	'명은'과 '나'가 종탑 아래에서 종을 울림.

상징적 의미

명은	주도자	• 종을 울려서 우화 속 백마처럼 자신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하늘에 호소하려는 소망을 지님. • 혼자서는 종탑까지 갈 수도 없고 종을 울릴 수도 없음.
'나' (건호)	조력자	• '딸고만이 아버지'의 주먹질과 발길질을 혼자 감당함. • '명은'을 보호하며 '명은'이 소원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줌.
딸고만이 아버지	방해자이자 조력자	• 종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아 아이들이 종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나'와 '명은'을 떼어 내려다 줄에 매달려 결국 같이 종을 치게 됨.

'종소리'의 의미

종소리 →
- 부모의 죽음을 목격한 '명은'의 울음소리
- '명은'의 여리고 순수한 소원
- 절망적인 상황에서 울리는 구원의 소리
- 전쟁의 비극을 세상에 전하며 평화를 바라는 소리

작품의 구성 요소와 전체의 유기적 관계

[어린아이인 '나'와 전쟁 피해자인 '명은']
전쟁의 폭력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동화 '백마 이야기' 삽입]
내용의 긴밀성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결말을 유도함.

소설 <종탑 아래에서>

[지역 방언 (사투리)]
당시 상황의 실감나는 재현, 현장감을 높임.

[등장인물이 함께 종을 울리는 결말]
전쟁의 상처를 치유할 가능성을 제시함.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옛날 어느 성에 용감한 기사와 바람처럼 빨리 달리는 백마가 살고 있었다. 기사는 사랑하는 백마를 타고 전쟁터마다 다니며 번번이 큰 공을 세워 성주로부터 푸짐한 상을 받곤 했다. 전쟁이 끝났다. 세월이 흘러 백마는 늙고 병들게 되었다. 그러자 기사는 자기와 오랫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한 백마를 외면한 채 전혀 돌보지 않았다. 늙고 병든 백마는 성내를 이리저리 떠돌다가 어떤 종탑 앞에 이르렀다. 누구든지 종을 쳐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할 수 있게끔 성주가 세워 놓은 종탑이었다. 백마의 눈에 종탑을 휘휘 감고 올라간 칡넝쿨이 보였다. 배고픔에 못 이겨 백마는 칡넝쿨을 뜯어 먹기 시작했다. 그러다 종 줄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그만 종소리를 울리고 말았다. 종소리를 들은 성주가 무슨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부하에게 지시했다. 그리하여 백마의 억울한 사연을 알게 된 성주는 은혜를 저버린 기사를 벌주고 백마를 죽을 때까지 따뜻이 보살펴 주었다.

(나) "건호야, 날 다시 교회로 데려가 줘. 내 손으로 종을 쳐 보고 싶어."

"그랬다간 큰일 나! 딸고만이 아부지 손에 맞어 죽을 거여!"

나는 팔짝 뛰면서 그 청을 ⓐ모지락스레 거절했다. 하지만 명은이는 나한테 ⓑ검질기게 달라붙으면서 계속 ⓒ비라리치고 있었다.

"제발 부탁이야. 딱 한 번만 내 손으로 직접 종을 쳐 보고 싶어."

"종은 쳐서 뭣 헐라고?"

"그냥 그래! 내 손으로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싶을 뿐이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명은이의 진짜 속셈이 무엇인가를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다. 동화 속의 늙고 병든 백마를 흉내 내고 싶은 것이었다. 버림받은 백마처럼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성주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이었다. 다름 아닌 눈을 뜨고 싶다는 소원을 하나님에게 전할 속셈임이 틀림없었다. 누구든지 종을 치면서 소원을 빌면 다 이루어진다고 명은이 앞에서 공연히 허튼소리를 지껄인 일이 새삼스레 후회되었다. ⓓ대관절 무슨 재주로 딸고만이 아버지 허락도 없이 교회 종을 ⓔ무단히 울린단 말인가?

경원고등학교 (부산)

1. 작가가 명은을 눈이 먼 소녀로 설정한 까닭으로 보기에 적절한 것은?

① 전쟁의 폭력성과 전쟁이 인간에게 남기는 고통을 보여 주기 위해
② 전쟁이 진실을 감추고 거짓을 퍼뜨린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해
③ 전쟁의 참혹함은 어린이에게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보여 주기 위해
④ 전쟁은 어른들의 것으로 어린이들과는 관련이 없어야 함을 보여 주기 위해
⑤ 전쟁 중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어린이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경원고등학교 (부산)

2. ⓐ~ⓔ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보기에 억세고 모질게
② ⓑ : 성질이나 행동이 몹시 끈덕지고 질기게
③ ⓒ : 구구한 말을 하여 가며 남에게 무엇을 청하는 일
④ ⓓ : 여러 말 할 것 없이 요점만 말하건대
⑤ ⓔ : 꾸준하게 잇대어 끊임이 없이

경원고등학교 (부산)

3. 작품 전체에서 종소리가 가지는 의미를 서술하고, (가)에서 '나'와 '명은'에 대응하는 대상을 각각 찾아 쓰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각각 서술하시오.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최전방에서는 중공군의 춘계 대공세가 한창이었다. 국군 또는 유엔군 몇 사단이 무슨 고지 전투에서 북괴군 몇 개 연대를 섬멸했고, 무슨 고지 전투에서 중공군 몇 개 사단을 궤멸시켰다는 등등의 내용을 담은 벽보들이 게시판에 어지럽게 나붙어 있었다. ㉠1 · 4 후퇴를 거쳐 전쟁은 처음 시작되었던 그 자리로 얼추 되돌아와 삼팔선을 사이에 두고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빼앗아 새로 차지한 땅은 거의 없는 셈인데 국군과 유엔군은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반면 북괴군과 중공군은 날마다 무더기로 죽어 나자빠진다는 내용만 벽보에 적히는 그 속내를 나는 당최 이해할 수 없었다.

(나) 시청 앞을 떠나 시공관 네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돌면 곧바로 익산 군청이었다. 나는 군청 입구에서 길바닥에 떨어진 나뭇개비를 찾느라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다음 차례가 익산 군수 관사이기 때문이었다. 관사 정원과 도로 사이에 담장 대신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철책이 쳐져 있었다. 철책에 나뭇개비를 대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힘껏 달리면 따발총같이 타타타타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곤 했다.

관사 철책에 나뭇개비를 막 갖다 대려다 말고 나는 갑자기 손놀림을 멈칫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무 몇 그루와 잔디밭만 휑하니 드러내 보이던 정원에서 인기척이 났다. 나하고 동갑 또래로 보이는 계집애였다.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 차림에 정갈하게 단발머리를 한 계집애가 한 손에 하얀 고무공을 쥔 채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은 괴상야릇한 자세로 도로 쪽을 향해 소리 없이 다가오는 중이었다.

(다) "거기 누구?"

내가 처음 서 있던 그 자리에 아직도 눈길을 고정한 채 계집애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나는 손에 든 나뭇개비를 아무렇게나 땅바닥에 팽개치면서 담박질을 놓기 시작했다. 당달봉사다! 집 쪽을 향해 정신없이 뛰면서 나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계집애가 눈뜬장님이란 사실을 최초로 알아차리던 순간의 놀라움이 나로 하여금 만세 주장 지에밥을 훔쳐 먹으려던 애초의 계획을 깜빡 잊도록 만들었다.

(라) "으쩌다가 그러코롬 당달봉사는 되야 뿌렀다냐?"

나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간밤부터 줄곧 품어 나온 의문을 입 밖으로 불쑥 털어 냈다.

㉣"당달봉사가 뭔데?"

역시 서울내기라서 별수가 없었다. 나는 당달봉사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려고 철책에 바싹 달라붙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낌새가 퍼뜩 느껴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홱 돌려 관사 쪽을 살펴보았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파가 유리창 안쪽에서 무시무시한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는 중이었다. 어마 뜨거라 하고 나는 전날처럼 또 담박질을 놓기 시작했다. 얘. 얘. 하고 다급히 부르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나는 뒤도 안 돌아다보고 진둥한둥 줄행랑을 놓았다.

<중간 부분 줄거리>

군수 관사에서 줄행랑을 놓은 지 사흘 만에 '나'는 다시 군수 관사를 찾아갔다가 명은이 외할머니를 만난다. 명은이 외할머니는 '나'에게 명은이가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명은이의 말동무가 되어 주어 고맙다는 인사와 관사에 자주 놀러 오라는 말을 한다. 그리고 부모가 한꺼번에 죽는 것을 보고 명은이의 눈이 멀었으니 명은이 앞에서는 절대 부모 이야기, 사람이 죽고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 장님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고 당부한다.

(마) "중부 전선 임진강 전투에서 우리 국군이 중공군 63군 3개 사단을 격퇴하고 대승을 거두었디야."

"듣기 싫단 말야! 제발 그만두란 말야!"

[A] 명은이가 쇠꼬챙이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갑자기 잔디밭에 퍼더버리고 앉았다.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 사태에 별안간 어안이 벙벙해져서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꼴도 보기 싫어! 가 버려! 가란 말야!"

제 손으로 제 머리칼을 마구 쥐어뜯으며 명은이는 거푸 쇠꼬챙이 소리를 질러 댔다. 명은이 외할머니가 해끔하게 놀란 표정으로 관사 안에서 허둥지둥 달려 나왔다. 가라니까 가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아직도 영문을 모르는 채로 나는 부리나케 관사를 빠져나왔다. 무엇이 서울 계집애의 성깔머리를 그토록 버르집어 놓았는지 당최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내 호의가 무시당한 관사 근처엔 앞으로 두 번 다시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나는 길바닥의 돌멩이를 발부리로 힘껏 걷어차 버렸다.

명은이 외할머니의 신신당부를 기억에서 언뜻 되살려 낸 것은 집에 거반 다다랐을 무렵이었다.

(바)

[B] 딸고만이 아버지는 정말 괴짜였다. 교회 종을 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같았다. 종을 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놀림감이 되지만 종을 치는 동안만큼은 언제나 존경의 대상이 되곤 했다. 마치 종 줄의 일부분인 양 앙바틈한 몸집이 굵은 밧줄 끝에 매달려 발바닥이 땅에 닿을 새가 없으리만큼 위로 솟구쳤다 아래로 곤두박질치기를 되풀이하면서 힘차게 종소리를 울려 대는 동안 그는 얼굴이 온통 시뻘겋게 상기한 채 꿈을 꾸는 듯한 표정을 짓곤 했다.

종 치는 일이 거반 끝나 갈 무렵쯤 되면 그는 자기 주위로 새까맣게 몰려들어 찬탄 어린 눈빛으로 구경하는 조무래기들 가운데서 딱 한 명만 골라 딱 한 차례만 종 줄을 잡아당기는 영광을 안겨 주곤 했다. 그악스레 뒤쫓아 다니며 딸고만이 아버지라고 놀려 먹은 적이 없는 착한 아이한테 대개 특혜를 베푸는 것이었다.

"딸고만이 아버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얼매든지 볼 수 있어."

말을 주고받다 보니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앞을 못 보는 명은이가 무슨 재주로 딸고만이 아버지를 본단 말인가?

"눈엔 안 보여도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

내 속마음을 읽었는지 명은이가 얼른 어른스럽게 말했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우리는 주일 저녁에 함께 신광 교회에 가기로 약속을 정했다.

(사) 옛날 어느 성에 용감한 기사와 바람처럼 빨리 달리는 백마가 살고 있었다. 기사는 사랑하는 백마를 타고 전쟁터마

다 다니며 번번이 큰 공을 세워 성주로부터 푸짐한 상을 받곤 했다. 전쟁이 끝났다. 세월이 흘러 백마는 늙고 병들게 되었다. 그러자 기사는 자기와 오랫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한 백마를 외면한 채 전혀 돌보지 않았다. 늙고 병든 백마는 성내를 이리저리 떠돌다가 어떤 종탑 앞에 이르렀다. 누구든지 종을 쳐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할 수 있게끔 성주가 세워 놓은 종탑이었다. 백마의 눈에 종탑을 휘휘 감고 올라간 칡넝쿨이 보였다. 배고픔에 못 이겨 백마는 칡넝쿨을 뜯어 먹기 시작했다. 그러다 종 줄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그만 종소리를 울리고 말았다. 종소리를 들은 성주가 무슨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부하에게 지시했다. 그리하여 백마의 억울한 사연을 알게 된 성주는 은혜를 저버린 기사를 벌주고 백마를 죽을 때까지 따뜻이 보살펴 주었다.

(아) "건호야, 날 다시 교회로 데려가 줘. 내 손으로 종을 쳐 보고 싶어."

"그랬다간 큰일 나! 딸고만이 아부지 손에 맞어 죽을 거여!"

나는 팔짝 뛰면서 그 청을 모지락스레 거절했다. 하지만 명은이는 나한테 검질기게 달라붙으면서 계속 비라리 치고 있었다.

"제발 부탁이야. 딱 한 번만 내 손으로 직접 종을 쳐 보고 싶어."

"종은 쳐서 뭣 헐라고?"

"그냥 그래! 내 손으로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싶을 뿐이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명은이의 진짜 속셈이 무엇인가를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다. 동화 속의 늙고 병든 백마를 흉내 내고 싶은 것이었다. 버림받은 백마처럼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성주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이었다. 다름 아닌 눈을 뜨고 싶다는 소원을 하나님에게 전할 속셈임이 틀림없었다.

(자) "소원을 빌어! 소원을 빌어!"

종소리와 경쟁하듯 목청을 높여 명은이를 채근하는 한편 나도 맘속으로 소원을 빌기 시작했다. 명은이가 소원을 다 빌 때까지 딸고만이 아버지를 잠시 귀먹쟁이로 만들어 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명은이와 내가 한 몸이 되어 밧줄에 매달린 채 땅바닥과 허공 사이를 절굿공이처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온몸으로 방아를 찧을 적마다 놋종은 우리 머리 위에서 부르르부르르 진저리를 치며 엄청난 목청으로 울어 댔다. 사람이 밧줄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젠 탄력이 붙을 대로 붙어 버린 밧줄이 오히려 사람을 제멋대로 갖고 노는 듯한 느낌이었다.

한창 종 치는 일에 고부라져 있었던 탓에 딸고만이 아버지가 달려오는 줄도 까맣게 몰랐다. 되알지게 엉덩이를 한방 걷어채고 나서야 앙바틈한 그의 모습을 어둠 속에서 겨우 가늠할 수 있었다. 기차 화통 삶아 먹은 듯한 고함과 동시에 그가 와락 덤벼들어 내 손을 밧줄에서 잡아떼려 했다. 그럴수록 나는 더욱더 기를 쓰고 밧줄에 매달려 더욱더 힘차게 종소리를 울렸다. 주먹질과 발길질이 무수히 날아들었다. 마구잡이 매타작에서 명은이를 지켜 주기 위해 나는 양다리를 가새질러 명은이 허리를 감싸 안았다. 한데 엉클어져 악착스레 종을 쳐대는 두 아이를 혼잣손으로 좀처럼 떼어 내기 어렵게 되자 나중에는 딸고만이 아버지도 밧줄에 함께 매달리고 말았다. 결국 종 치는 사람이 셋으로 불어난 꼴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 기운차게 느껴지는 종소리가 어둠에 잠긴 세상 속으로 멀리멀리 퍼져 나가고 있었다. 명은이 입에서 별안간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때때옷을 입은 어린애를 닮은 듯한 그 울음소리를 무동 태운 채 종소리는 마치 하늘 끝에라도 닿으려는 기세로 독수리처럼 높이높이 솟구쳐 오르고 있었다.

덴그렁 뎅 뎅그렁 뎅 뎅그렁 뎅…….

– 윤흥길, 「종탑 아래에서」

권선고등학교 (경기)

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대립적인 두 공간을 병치시켜 사건을 전개한다.
ㄴ. 과거 장면을 삽입하여 인물들의 관계를 드러낸다.
ㄷ. 현실을 반영하여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제시한다.
ㄹ. 고유한 개성을 지닌 인물이 사건의 주체로서 행동한다.
ㅁ.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독자의 추리와 상상을 유도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권선고등학교 (경기)

5. 윗글의 배경과 그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공간적 배경은 전북 익산 시내이다.
② 명은이는 전쟁 중에 부모님을 잃고 눈이 머는 피해를 입었다.
③ 밥을 훔쳐 먹을 정도로 전쟁으로 인해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다.
④ '나'는 전방에서 떨어진 곳에 살며 전황 소식을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로 여겼다.
⑤ '나'와 명은이는 주변 어른들을 통해 전쟁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는다.

권선고등학교 (경기)

6.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새로운 사건이 생길 것임을 보여준다.
② ㉡ : 전쟁에 대한 보도가 편파적이었음을 보여준다.
③ ㉢ : 소녀를 훔쳐보다 들킨 것이 창피해서 한 행동이다.
④ ㉣ : 소녀가 '당달봉사'라는 말에 반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⑤ ㉤ : 명은이가 노파의 감시 속에 외롭게 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권선고등학교 (경기)

7. 윗글의 [A], [B]에서 인물 제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른 것은?

<보기>

ㄱ. [A]는 서술자가 인물의 외양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ㄴ. [A]는 나와 명은이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ㄷ. [B]는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부정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
ㄹ. [B]는 서술자의 관점에서 인물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ㅁ. [B]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인물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ㄹ, ㅁ

권선고등학교 (경기)

8. 윗글의 '백마 이야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칡넝쿨은 백마를 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② 종소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울리는 구원의 소리이다.
③ 백마의 억울한 사연을 풀어주는 성주는 '나'와 대응된다.
④ '백마 이야기'는 평범한 교회의 종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⑤ '백마 이야기'는 명은이와 '나'가 함께 종을 치는 소설의 결말에 인과성을 높여준다.

권선고등학교 (경기)

9. 다음을 참고할 때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동적인 위치에서 어떤 일을 이끄는 인물을 '주도자', 그 일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인물을 '조력자', 그 일을 실현하는 데 해를 끼치는 인물을 '방해자'라고 한다.

① 명은이는 종을 울려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소망을 지닌 '주도자'이다.
② 명은이는 '주도자'이지만 혼자서는 종탑까지 갈 수도 없고 종을 울릴 수도 없다.
③ '나'는 명은이를 위해 딸고만이 아버지의 주먹질과 발길을 혼자 감당하는 '주도자'이다.
④ 딸고만이 아버지는 아이들이 종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관리자로 명은이의 소망을 실현하는 데에 '방해자'이다.
⑤ 딸고만이 아버지는 결말 부분에서 '나'와 명은이를 떼어 내려다 줄에 매달려 결국 같이 종을 치게 되는 '조력자'로 변한다.

권선고등학교 (경기)

10.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윗글에서 명은이의 눈이 먼 것으로 설정한 작가의 의도를 서술하시오.

<조건>
- '~을/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의 형식으로 쓸 것
- 윗글의 '시간적 배경'을 포함할 것

(2) 윗글에서 명은이와 '나'가 함께 종을 울리는 결말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조건>
- '~가능성을 제시한다.'의 형식으로 쓸 것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방과 후 집에 가던 길에 막산 군수 관사에서 만난 소녀가 눈뜬 장님인 것을 알고 놀라 달아난다. 다음날 군수 관사에서 소녀(명은)를 다시 만나 처음 이야기를 나누던 중 명은이 외할머니의 경계의 눈길을 느끼고 줄행랑을 놓는다. 사흘 만에 '나'는 다시 군수 관사를 찾아갔다가 명은이 외할머니를 만난다. 명은이 외할머니는 '나'에게 명은이가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명은이의 말동무가 되어 주어 고맙다는 인사와 관사에 자주 놀러 오라는 말을 한다. 그리고 부모가 한꺼번에 죽는 것을 보고 명은이의 눈이 멀었으니 명은이 앞에서는 절대 부모 이야기, 사랑이 죽고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 장님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고 당부한다.

명은이의 퇴원이 예정된 날은 때마침 주일이었다. 우리 식구들은 서울에서 피란 내려온 막내 이모의 전도 덕분에 수복 직후부터 신광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교회 사찰인 딸고만이 아버지가 힘차게 울려 대는 종소리에 이끌려 나는 주일 아침에 신광 교회로 향했다. <중략>

나는 주일 학교를 마치기 무섭게 신광 교회에서 곧장 시청을 향해 달려갔다. 명은이에게 건넬 선물을 장만하기 위해서였다. 전황에 대한 새로운 소식은 앞 못 보는 명은이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결코 시골뜨기라고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님을 서울내기 계집애한테 일깨워 주는 확실한 증거물이 될 것이었다. <중략>

시청 앞 게시판에서 공들여 외워 온 ㉠벽보 내용을 뜻도 모르는 채 앵무새처럼 고스란히 옮기면서 나는 명은이의 반응을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명은이의 손아귀에서 스르르 힘이 풀리면서 공이 잔디밭으로 굴러 떨어졌다. 명은이의 그런 반응을 나는 일종의 감동의 표시로 받아들였다. 서울내기 계집애를 감동시킨 내 솜씨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나는 곧장 다음 소식으로 넘어갔다.

[A]
"중부 전선 임진강 전투에서 우리 국군이 중공군 63군 3개 사단을 격퇴하고 대승을 거두었디야."

"듣기 싫단 말야! 제발 그만두란 말야!"

명은이가 쇠꼬챙이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갑자기 잔디밭에 퍼더버리고 앉았다.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 사태에 별안간 어안이 벙벙해져서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꼴도 보기 싫어! 가 버려! 가란 말야!"

제 손으로 제 머리칼을 마구 쥐어뜯으며 명은이는 거푸 쇠꼬챙이 소리를 질러 댔다. 명은이 외할머니가 해끔하게 놀란 표정으로 관사 안에서 허둥지둥 달려 나왔다.

가라니까 가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아직도 영문을 모르는 채로 나는 부리나케 관사를 빠져나왔다. 무엇이 서울 계집애의 성깔머리를 그토록 버르집어 놓았는지 당최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내 호의가 무시당한 관사 근처엔 앞으로 두 번 다시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나는 길바닥의 돌멩이를 발부리로 힘껏 걷어차 버렸다.

명은이 외할머니의 신신당부를 기억에서 언뜻 되살려 낸 것은 집에 거반 다다랐을 무렵이었다. 사람이 죽고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는 절대로 입 밖에 꺼내지 말 것. 세 가지 당부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두 번째 당부를 어긴 셈이었다. 시청 앞 게시판을 기웃거리는 버릇이 내게서 영영 떠나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그때 퍼뜩 예감할 수 있었다.

혼자서 다짐했던 대로 나는 하루 동안 관사 근처에 얼씬하지 않았다. 그러나 집 안에 머물러 지내는 동안에도 내 마음은 관사 언저리를 줄곧 배회하고 있었다. 꼴도 보기 싫다고 명은이가 지르던 쇳소리가 내 귓바퀴를 끊임없이 맴돌았다.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나는 결국 다음 날 해 질 녘에 관사를 또다시 찾아가고 말았다. <중략>

바로 그때였다. 종소리가 데엥, 하고 묵중하게 울렸다. 한번 울리기 시작한 종소리는 짧은 쉴 참을 거친 후 뎅그렁 뎅, 뎅그렁 뎅, 연달아 기세 좋게 울렸다. 명은이는 느닷없는 종소리에 움찔 놀라는 기색이었다. 종소리가 들려오는 신광 교회 쪽을 향해 명은이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다. 저녁놀에 함빡 젖은 채 종소리에 다소곳이 귀를 기울이는 명은이 모습에서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리만큼 묘한 감동을 받았다.

"삼일 종이여."

나는 철책 밖에 내가 와 있다는 사실을 그예 큰 소리로 기별하고 말았다. 명은이가 화들짝 놀라는 몸짓을 취했다.

"나비야! 나비야!"

하마터면 잊을 뻔했다는 듯이, 마치 내가 나타나기 전까지 줄곧 나비와 함께 공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명은이는 공을 잔디밭 위로 도르르 굴리면서 부산을 떠는 시늉을 했다. 겨냥이 지나쳐 공은 철책 밑을 통과해서 내 발치까지 데굴데굴 굴러 왔다. 나는 공을 주워 철책 안으로 던졌다.

㉢"왔으면 얼른 들어와야지 왜 거기 서 있니?"

거기 누구, 하고 묻는 대신 명은이는 나를 책망하는 척했다. 때맞춰 관사 현관문이 활짝 열렸다. 명은이 외할머니가 꾸짖음 반 반가움 반의 어정쩡한 기색으로 나를 맞아들였다. ㉣잔뜩 낯꽃을 붉힌 채 나는 관사 내부를 빠른 걸음으로 통과해서 정원으로 나갔다.

"삼일 종이 뭔데?"

"수요일에 치는 종이여. 교회 사람들은 수요일 저녁 예배를 삼일 예배라고 불러. 저것은 초종이여. 한참 있다가 재종을 칠 거여."

명은이한테 미안해하던 참에 나는 도롱테 굴리듯 빠른 말씨로 한바탕 정신없이 지껄였다.

"어머나, 건호 너 교회 다니니?"

"엉. 딸고만이 아부지가 시방 초종을 치고 있는 중이여. ㉤명은이 너, 딸고만이 아부지가 누군지 몰르지? 딸고만이 아부지는……."

야트막한 언덕 위 신광 교회 종탑 밑에서 종 줄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허공 속을 연방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신 나게 종을 치고 있을 사찰 아저씨의 앙바틈한 모습을 머리에 떠올리

니까 절로 웃음이 비어졌다. 다섯 번째로 또 딸을 낳고 나서 지어 준 이름이 딸고만이였다.

"딸내미 이름을 그러코롬 엉터리없이 지어 놓으면 요 담번엔 틀림없이 아들을 낳게 된디야."

– 윤흥길, '종탑 아래에서'

부명고등학교 (경기)

11.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특정지역의 사투리를 사용하여 사실감과 생동감을 확보하고 있다.

② '임진강 전투', '중공군' 등의 용어로 볼 때 한국전쟁이 배경임을 알 수 있다.

③ 전쟁의 피해를 입은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전쟁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있다.

④ 남아선호 사상을 반영해 딸의 이름을 지은 인물을 희화화하여 양성평등 의식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⑤ 아이들도 전황을 쉽게 접하고 이야깃거리로 삼는다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전쟁이 내면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부명고등학교 (경기)

12.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명은이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한 '나'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명은이 할머니의 당부를 어긴 것이 된다.

② ㉡–호의가 무시당했다고 화가 나 있는 것으로 보아 '나'는 자신의 실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③ ㉢–책망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화해의 의미와 더불어 반가움을 내포하고 있다.

④ ㉣–주변 인물들의 반응이 기대한 것과 다른 데 대한 실망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딸고만이 아버지'는 명은이와 '나'의 사이를 다시 친밀하게 해주는 대상이 되고 있다.

부명고등학교 (경기)

13. <보기>를 참고할 때 [A]와 같은 인물 제시 방법이 나타난 것은?

<보기>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제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직접 제시' 또는 '말하기'라 칭하며, 다른 하나는 '간접 제시' 또는 '보여주기'라고 명한다.

① 백화는 그런 일 때문에 갈매기집에 있던 시절, 옷 한 가지도 못 해 입었다. 백화는 지나간 삭막한 삼 년 중에서 그때만큼 즐겁고 마음이 평화로웠던 시절은 없었다.

– 황석영, '삼포 가는 길'

② 덕순이는 통째 짓무를 듯싶은 등어리를 견디지 못하여 먼젓번에 쉬어 가던 나무 그늘에 지게를 벗어 놓는다. 땀을 들여 가며 아내를 가만히 내려다보니 그동안 고생만 시키고 변변히 먹이지도 못하였던 것이 갑자기 후회가 나는 것이다.

– 김유정, '땡볕'

③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에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찔끔찔끔 번지고, 침이 걸려서 캑캐거리면서도 그의 웃음은 멎지 않았다.

– 최인훈, '광장'

④ 거듭거듭 말하자면 석대는 참으로 무서운 아이였다. 우리보다 나이가 많다 해도 기껏 열대여섯의 소년에 지나지 않았건만, 그는 참아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하는 것을 아는 듯 했다. 그 쪽으로는 본능적으로 발달된 감각을 가진 아이 같았다.

–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⑤ 옥임이는 정례 모친이 혼쭐이 나서 달아나는 꼴을 그것보라는 듯이 곁눈으로 훌겨보고 입귀를 샐룩하여 비웃으며, 버젓이 사람 틈을 헤치고 종로 편으로 내려갔다. 의기양양 할 것도 없지마는, 가슴 속이 후련하니 머릿속이고 가슴속이고 무언지 뭉치고 비비꼬이고 하던 것이 풀어져 스러지고 회가 제대로 도는 것 같아서 기분이 시원하다.

– 염상섭, '두 파산'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외할머니의 허락을 받고 명은이와 나는 딸고만이 아버지가 초종을 울릴 시간에 맞추어 관사를 출발했다. 명은이 손을 잡고 조심조심 길을 인도하는 탓에 관사에서 신광 교회까지 평상시보다 곱절 이상 거리가 멀게 느껴졌다. 먼 길을 걷는 동안 나는 전에 주일 학교 반사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재탕해서 명은이에게 들려주는 일로 시간을 때웠다.

옛날 어느 성에 용감한 기사와 바람처럼 빨리 달리는 백마가 살고 있었다. 기사는 사랑하는 백마를 타고 전쟁터마다 다니며 번번이 큰 공을 세워 성주로부터 푸짐한 상을 받곤 했다. 전쟁이 끝났다. 세월이 흘러 백마는 늙고 병들게 되었다. 그러자 기사는 자기와 오랫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한 백마를 외면한 채 전혀 돌보지 않았다. 늙고 병든 백마는 성내를 이리저리 떠돌다가 어떤 종탑 앞에 이르렀다. 누구든지 종을 쳐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할 수 있게끔 성주가 세워 놓은 종탑이었다. 백마의 눈에 종탑을 휘휘 감고 올라간 칡넝쿨이 보였다. 배고픔에 못 이겨 백마는 칡넝쿨을 뜯어 먹기 시작했다. 그러다 종 줄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그만 종소리를 울리고 말았다. 종소리를 들은 성주가 무슨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부하에게 지시했다. 그리하여 백마의 억울한 사연을 알게 된 성주는 은혜를 저버린 기사를 벌주고 백마를 죽을 때까지 따뜻이 보살펴 주었다.

"억울한 사람은 누구든지 종을 칠 수 있다고?"

느슨히 잡고 있던 내 손을 갑자기 꽉 움켜쥐면서 명은이가 물었다. 나는 괜스레 우쭐해진 나머지 얼김에 말갈망도 못할 허세를 부리고 말았다.

"그렇다니깨. 아무나 다 종을 침시나 맘속으로 소원을 빌으면은 그 소원이 죄다 이뤄진디야."

(나) 명은이가 내게 무리한 부탁을 해 온 것은 신광 교회 종탑에서 색다른 경험을 한 바로 그다음 날이었다. 다시 만나자마자 명은이는 나를 붙잡고 엉뚱깽뚱한 소리를 했다.

"건호야, 날 다시 교회로 데려가 줘. 내 손으로 종을 쳐 보고 싶어."

"그랬다간 큰일 나! 딸고만이 아부지 손에 맞어 죽을 거여!"

㉠나는 팔짝 뛰면서 그 청을 모지락스레 거절했다. 하지만 명은이는 나한테 검질기게 달라붙으면서 계속 비라리치고 있었다.

"제발 부탁이야. 딱 한 번만 내 손으로 직접 종을 쳐 보고 싶어."

"종은 쳐서 뭣 헐라고?"

"그냥 그래! 내 손으로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싶을 뿐이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명은이의 진짜 속셈이 무엇인가를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다. 동화 속의 늙고 병든 백마를 흉내 내고 싶은 것이었다. 버림받은 백마처럼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성주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이었다. 다름 아닌 눈을 뜨고 싶다는 소원을 하나님에게 전할 속셈임이 틀림없었다. ㉡누구든지 종을 치면서 소원을 빌면 다 이루어진다고 명은이 앞에서 공연히 허튼소리를 지껄인 일이 새삼스레 후회되었다. 대관절 무슨 재주로 딸고만이 아버지 허락도 없이 교회 종을 무단히 울린단 말인가?

"알었다고. 알었다니깨."

연방 도리머리를 하는 내 마음과는 딴판으로 내 입에서는 승낙의 말이 잘도 흘러나왔다. 끝끝내 명은이의 간청을 뿌리칠 재간이 내게 없다는 사실을 나는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다.

(다) "소원 빌을 준비를 혀!"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데엥, 하고 첫 번째 종소리가 울렸다. 그 첫 소리를 울리기까지가 힘들었다. 일단 첫 소리를 울리고 나니 그다음부터는 모든 절차가 한결 수월해졌다. 뎅그렁 뎅, 뎅그렁 뎅, 기세 좋게 울려 대는 종소리에 귀가 갑자기 먹먹해졌다.

"소원을 빌어! 소원을 빌어!"

종소리와 경쟁하듯 목청을 높여 명은이를 채근하는 한편 나도 맘속으로 소원을 빌기 시작했다. 명은이가 소원을 다 빌 때까지 딸고만이 아버지를 잠시 귀먹쟁이로 만들어 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명은이와 내가 한 몸이 되어 밧줄에 매달린 채 땅바닥과 허공 사이를 절굿공이처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온몸으로 방아를 찧을 적마다 놋종은 우리 머리 위에서 부르르부르르 진저리를 치며 엄청난 목청으로 울어 댔다. 사람이 밧줄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젠 탄력이 붙을 대로 붙어 버린 밧줄이 오히려 사람을 제멋대로 갖고 노는 듯한 느낌이었다.

한창 종 치는 일에 고부라져 있었던 탓에 딸고만이 아버지가 달려오는 줄도 까맣게 몰랐다. 되알지게 엉덩이를 한방 걷어채고 나서야 앙바틈한 그의 모습을 어둠 속에서 겨우 가늠할 수 있었다. 기차 화통 삶아 먹은 듯한 고함과 동시에 그가 와락 덤벼들어 내 손을 밧줄에서 잡아떼려 했다. 그럴수록 나는 더욱더 기를 쓰고 밧줄에 매달려 더욱더 힘차게 종소리를 울렸다. 주먹질과 발길질이 무수히 날아들었다. ㉢마구잡이 매타작에서 명은이를 지켜 주기 위해 나는 양다리를 가새질러 명은이 허리를 감싸 안았다. 한데 엉클어져 악착스레 종을 쳐 대는 두 아이를 혼잣손으로 좀처럼 떼어 내기 어렵게 되자 나중에는 ㉣딸고만이 아버지도 밧줄에 함께 매달리고 말았다. 결국 종 치는 사람이 셋으로 불어난 꼴이었다.

[A] 그 어느 때보다 기운차게 느껴지는 종소리가 어둠에 잠긴 세상 속으로 멀리멀리 퍼져 나가고 있었다. 명은이 입에서 별안간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때때옷을 입은 어린애를 닮은 듯한 그 울음소리를 무동 태운 채 종소리는 마치 하늘 끝에라도 닿으려는 기세로 독수리처럼 높이높이 솟구쳐 오르고 있었다.

㉤뎅그렁 뎅 뎅그렁 뎅 뎅그렁 뎅…….

– 윤흥길, '종탑 아래에서'

부명고등학교 (경기)

14.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인물의 내면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사가 진행되고 있다.
② 주인공인 서술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③ 현재와 과거의 이야기가 교차 서술되어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④ 장소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 설정하여 사건의 의미를 다양하게 조명하고 있다.
⑤ 공간적 배경에 대한 세밀한 묘사를 통해 인물의 혼란스러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부명고등학교 (경기)

15.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끈질기게 요청하는 장면을 통해 인물의 간절함을 드러낸다.
② ㉡–권선징악적 주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복선의 기능을 지닌다.
③ ㉢–명은이를 향한 '나'의 헌신적인 자세를 알 수 있다.
④ ㉣–방해자로 등장했으나 결국에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셈이 되었다.
⑤ ㉤–독자에게 강한 여운을 주는 결말로 마무리하고 있다.

부명고등학교 (경기)

16. [A]장면이 의미하는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반공 사상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경각심을 강조한다.
② 절망적인 상황에서 울리는 구원의 메시지를 상징한다.
③ 전쟁의 상처가 공감과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④ 명은의 응엉리진 감정이 울음으로 터져 나오는 것을 뜻한다.
⑤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평화를 바라는 소리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명고등학교 (경기)

17. 다음은 (가)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단, ㉮는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관련성을 서술할 것)

작품에 삽입된 '백마 이야기'는 '칡넝쿨'을 (㉮)와/과 대응시키고 '백마'를 (㉯)와/과 대응시킴으로써 내용의 긴밀성을 높인다. 또한 '백마 이야기'는 작품의 결말과 관련지어 (㉰) 기능을 한다.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대미를 장식헐 만헌 순애보라고 내 입으로 말허기는 약간 거시기헌 구석이 있지마는……."

인테리어 전문점을 운영하는 최건호였다. 묵비권이라도 행사하듯 내내 잠자코 앉아 남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그가 뜻밖에도 자진해서 마지막 이야기 순번을 떠맡고 나서자 그에게도 입이 달려 있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좌중은 깜짝 반가워했다.

"반세기가 지나가드락 영 잊혀지지 않는 소녀가 있다면 혹시 순애보 계열에 턱걸이로라도 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고백 성사라도 하려는 사람처럼 최건호의 표정은 그지없이 진지해 보였다. 모처럼 어렵게 입을 연 최건호가 일껏 꺼낸 이야기를 도로 주워 담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좌중은 온갖 발림으로 충동질했다.

"낭중에라도 순애보가 기네, 아니네, 허고 우리 건호한티 시비 거는 놈이 나타났다 허면 당장 내가 가만 안 놔둔다!"

동창생들의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 최건호가 마침내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했다.

"만세 주장 근방에서 살 적에 있었던 일인디……."

(나) 내가 그 계집애를 맨 처음 본 것은 봄볕이 ⓐ다냥하게 내리쬐는 한낮이었다. 아침에 등교하면서 길가에 멍석을 펴는 짝눈이 아저씨를 봤기 때문에 나는 그날도 하굣길에 일부러 네거리 하나를 더 지나 먼 길을 에돌아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경찰서 앞을 지난 다음 시청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시청 담벼락을 따라 길게 잇대어 세워 놓은 게시판이 큼지막한 벽보들로 더덕더덕 도배되어 있었다. 벽보에는 최근의 전황들이 주먹 덩이만 한 붓글씨로 짤막짤막하게 적혀 있어 지나가던 행인들을 게시판 앞에 한참씩 붙들어 세우곤 했다.

시청 앞을 떠나 시공관 네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돌면 곧바로 익산 군청이었다. 나는 군청 입구에서 길바닥에 떨어진 나뭇개비를 찾느라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다음 차례가 익산 군수 관사이기 때문이었다. 관사 정원과 도로 사이에 담장 대신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철책이 쳐져 있었다. 철책에 나뭇개비를 대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힘껏 달리면 따발총같이 타타타타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곤 했다.

4-(3) 두근두근 내 인생

[1] 극 갈래

개념	• '보여주기'의 표현 양식 • 서술자 없이 배우의 대사와 행동으로 표현하는 문학의 한 갈래
종류	희곡, 시나리오, 민속극 대본, 드라마 대본 등
특성	• 종합 예술(연극, 영화, 오페라 등)을 위한 대본 •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며, 그 사건을 현재형으로 보여 줌. • 대체로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을 통해 극의 주제가 제시됨. • 사건을 전달하는 서술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음.
구성 요소	등장인물, 대사, 행동, 지시문, 해설 등

[2] 극 갈래와 서사 갈래의 차이점

① 인물, 사건, 배경으로 구성되며, 갈등을 중심으로 하여 사건이 전개된다.
② 서술자가 개입하지 않고, 주로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표현된다.
③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고, 장면의 변화가 자유롭다.
④ 컷(cut)과 장면(scene) 단위로 구성된다.

[3] 제재 정리

갈래	시나리오	**성격**	서정적, 애상적
제재	선천성 조로증에 걸린 소년의 삶		
주제	선천성 조로증에 걸린 소년의 삶과 가족 간의 사랑		
특징	① 청춘과 노년의 삶을 동시적으로 보여 주는 아이러니한 서사 구조를 통해, 아프지만 아름다운 청춘과 인생의 의미를 성찰하게 한다. ② 조로증이라는 희귀병을 다루면서도 무겁지 않은 경쾌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독자에게 감동을 전한다. ③ 청춘을 맞기도 전에 늙어 버린 주인공이 삶의 순간순간 느끼는 섬세한 감정들이 잘 드러난다.		

■ 글의 구조와 주제

메일을 주고받으며 친구가 되었던 '아름'과 '서하'의 이야기 ⇨	• 선천성 조로증에 걸린 소년이 갖는 삶에 대한 소망 •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가치
투병 중인 '아름'과 이런 아들을 돌보는 '대수', '미라'의 이야기 ⇨	•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 가족의 소중함

소재의 의미와 역할

'서하'의 편지	• 투병 중인 '아름'의 일상에 변화를 가져다 줌. • '아름'에게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이성에 대한 호기심을 느끼게 함. • '서하'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아름'에게 상처가 됨.
계일기	• '아름'이 자신의 운명에 대한 분노와 '서하'에게 받은 충격을 표출하는 대상 • '대수'와 갈등을 겪게 되는 표면적 원인

작품의 구성 요소와 전체의 유기적 관계

인물	선천성 조로증을 앓고 있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함.	선천성 조로증으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소년이 삶에 대해 갖는 애착과 설렘을 보여 주어 삶의 소중함과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함.
제목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작품 제목	투병 중인 '아름'의 가슴을 설레게 한 인생의 순간을 의미함. '아름'이 서하의 편지를 받으면서 설렘, 기쁨, 삶에 대한 열망 등을 느끼게 되는 내용을 제목을 통해 효과적으로 나타냄.
사건	'아름'과 메일을 주고받았던 '서하'가 가공의 인물이었다는 사건 전개	'서하'의 실체로 아름이 상처를 받았지만, 투병 생활을 하던 '아름'이 '서하'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일상에서 두근거림과 삶의 의욕을 느낌.
장면	하늘 공원에서 '아름'이 '대수'에게 안겨 울음을 터뜨리고 함께 별똥별을 보며 소원을 비는 장면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표현 방법	S# 52에서 아름이의 편지 내용을 몽타주 기법으로 제시	'아름'의 목소리와 함께 편지에 언급한 내용이 이미지로 제시되어 '아름'의 삶에 대한 소망이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느껴짐.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S# 17 아름이의 방(낮-해 질 녘)

아빠의 과거를 생각하며 글을 쓰던 아름이.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진다. / 밀려오는 심장의 통증. 대수가 눈치챌까 봐 힘겹게 걸어가 방문을 닫고는, 약통에서 진통제를 꺼내 먹고 진정하려한다.

식은땀이 흐르고,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약에 취해 꾸부린 채 까무룩 잠이 드는 아름이.

그때 '띵' 전자 우편 수신을 알리는 소리. 잠에서 깨는 아름이.

접속해 보면 편지함에 편지 한 통이 와 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이서하', 제목은 '아름에게'.

아름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편지을 열어 보면 편지 내용이 화면에 채워진다.

안녕? 나는 이서하라고 해. 열여섯 살, 너랑 같은 나이야.

네 전자 우편 주소는 방송국을 통해 겨우 받아 냈어.

아마 나도 아픈 아이란 걸 알고 알려 준 것 같아.

방송을 본 후 너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물론 아름이 너만큼은 아니겠지만, 일 분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에 대해, 나도 조금은 알고 있거든. 행운을 빌어.

아름 : 이서하?

㉢두근두근, 갑자기 가슴이 뛰고, 목이 바짝바짝 타면서, 온몸에 열기가 느껴지는 아름이.

S# 18 아름이의 방, 집 앞 골목길(낮~밤)

서하(소리) : (귀여운 말투로) 안녕? 나는 이서하라고 해. 너랑 같은 나이야.

환청으로 아름이의 귓가에 자꾸만 반복되는 서하의 목소리. / 아름이, ㉣책상 앞에 앉았지만 집중이 되질 않는다. 그렇게 날이 바뀌어도 떠나질 않는 환청.

컷 투(cut to). 침대에 누워 있는 아름이. 밤이 되어도 귓가에서 떠나질 않는 서하의 목소리.

서하(소리) : (농염한 말투로) 안녕? 나는 이서하라고 해. 너랑 같은 나이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아름이. 눈 밑에 눈그늘이 내려와 있고 좀처럼 잠이 올 것 같지 않다.

컷 투(cut to). 집 앞 골목길의 아름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도는 목소리.

서하(소리) : (청순한 말투로) 안녕? 나는 이서하라고 해. 너랑 같은 나이야.

경원고등학교 (부산)

1. 윗글의 갈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보여주기'의 표현 양식에 해당한다.
② 희곡, 민속극이나 드라마의 대본이 포함된다.
③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④ 과거형으로 드러나는 사건 중심으로 전개된다.
⑤ 갈등과 그 해결 과정에서 극의 주제가 드러난다.

경원고등학교 (부산)

2. ㉠~㉤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갑자기 밀려온 심장의 통증 때문에
② ㉡: 보낸 이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③ ㉢ : 보낸 사람에 대한 궁금함, 호기심 때문에
④ ㉣ : 서하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에
⑤ ㉤: 밤중에 심장의 통증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경원고등학교 (부산)

3. 다음은 이 시나리오의 원작 소설 중 일부이다. <보기>의 시점이 어떠한 시점인지를 밝히고, 'S# 18'와 <보기>를 통해 서사 갈래와 극 갈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시오. (공통점은 한 가지를, 차이점의 경우 '서사 갈래는 ~, 극 갈래는 ~' 형식으로 나누어 서술할 것)

<보기>

나는 모니터 속 메일을 꼼꼼하게 다시 읽어 보았다. '안녕? 나는 이서하라고 해. 열일곱, 너랑 같은 나이야.'

'네 속 시간들에 대해 내가 다른 이름을 붙여 주고 싶었어.' '여름에도 겨울이 있고, 가을에도 봄이 있대.' 그 아이의 목소리가 내 속에서 메아리쳐 자꾸 울렸다. 그래서 그 애 말대로 내가 정말 산이라도 된 기분이었다.

'같은 나이야, 같은 나이야…… 봄이 있대, 봄이 있대…….'

내 또래의 여자아이에게 그런 메시지를 받아 본 건 태어나 처음이었다. 남자아이였음, 그랬으면 달랐을까? 아마 달랐을 거다. 부끄럽지만 사실 그랬다. 그 아이는 왠지 여느 여자애들과는 달라 보였다.

– 김애란, <두근두근 내 인생>에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S#59 아름이의 병실(오후)

어둠 속에서 요란한 효과음 들려오며 (fade-in).

유혈이 낭자한 게임 속 세상. 아름이가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런 아름이를 걱정스레 바라보는 대수와 미라.

거친 말을 연발하는 아름이의 표정에 감정이라곤 없어 보인다. 식판을 든 미라. 조심스레 아름이에게 다가간다.

미라 : 밥 먹고 하지?

아름 : 이따 먹을게요.

미라 : 약 먹을 시간 지났잖아.

아름 : 금방 끝나요.

미라 : 벌써 두 시간째야. 그만하고 얼른! (게임기를 뺏으려 한다.)

아름 : 내버려 둬요, 좀!

게임기를 뺏기지 않으려다가 식판을 치고 만 아름이.

식판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나뒹군다.

그 소리에 복도를 지나던 사람이 아름이의 병실을 힐끔 쳐다본다.

미라, 주섬주섬 떨어진 음식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대수 :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아름 : (미안한 마음에 도리어 화를 내며) 그러니까 이따 먹는댔잖아요.

대수 : 너 그거 안 내려놔?

아름 : (게임에만 몰두한다.) …….

대수 : 아빠 말 안 들려!

아름 : (대수가 게임기를 뺏으려 하자) 왜 그래요, 진짜! 좀 내버려 두세요! (뿌리치며) 낫지도 않는 걸 왜 자꾸 먹으래! 어차피 죽을 거!

대수, 미라 : (놀라 아무 말도 못 한 채) …….

아름 : (봇물 터지듯이 말하며) 내가 지금까지 엄마, 아빠 말 안 들은 적 있어요? 그냥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겠다는데, (게임기 흔들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이거라고요. 왜 이까짓 것도 못하게 해요? 네?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S# 60 병원 비상계단(오후)

어디선가 들려오는 흐느낌. 아무도 없는 계단에

홀로 앉아 울고 있는 대수.

그의 넓은 등이, 그의 꽉 쥔 주먹이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다. 바닥에 대수의 눈물이 후드득 떨어진다.

[A] 비상계단 문이 열리고 미라가 혼자 울고 있는 대수를 물끄러미 보다가 천천히 다가와 뒤에서 안아 주며, 대수의 등에 얼굴을 천천히 포갠다.

미라의 눈에서도 눈물이 한 줄기 흐른다. 내색하지 않고 눈을 질끈 감는 미라.

S# 61 아름이의 병실(다음날 오후)

침대에 누운 아름이, 침대 끝에서 짐을 챙기고 있는 미라, 그 옆에 서 있는 대수.

미라, 옷을 챙겨 입고 배낭까지 다 챙겼음에도 발걸음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다.

미라 : (아름이의 손을 잡으며) 엄마, 집에 좀 다녀올게. 잠깐 혼자 있을 수 있지? 심심하면 아빠 오늘 쉬라고 할까? 아니면 외삼촌이나 외숙모 중에…….

아름 : (창 쪽 바라보며, 고개 젓는다.) 괜찮아요.

컷 투(cut to). 침대에 걸터앉은 대수와 누워 있는 아름이. 부자는 서먹한 채 말이 없다.

4시를 향해 가는 시계. 대수, 일 나가기 전에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 아름이의 눈치를 본다. 그때 먼저 말을 거는 아름이.

아름 : 아빠…….

대수 : 응?

아름 : 아빠, 나 오늘 아빠랑 같이 다니면 안 돼? 하늘 공원에 별 보러 가고 싶어.

대수, 아름이를 안타깝게 본다.

S#63 하늘 공원(밤)

하늘 공원에 도착한 대수의 택시. "겨울철 출입 금지"라고 써진 차단기가 보인다.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먼저내리는 아름이. 대수도 주차를 하고 서둘러 따라 내려 보면, 어느새 저만치 아름이가 어두운 오솔길을 뛰어가고 있다.

당황하는 대수, 아름이를 부르며 쫓아가고 두 사람의 추격 아닌 추격이 계속된다.

전망대 부근에 다가가서야 겨우 아름이를 붙잡아 세우는 대수.

숨을 내쉬고는 돌이켜 세워 보면 아름이가 숨을 가쁘게 헐떡이며 울고 있다.

대수 : 아름이 너! (혼내려다 눈물범벅인 아름이를 보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름 : 흑흑……. 너무 좋아서요.

대수 : 대체 무슨 소리야. 괜찮아?

아름 : (거친 숨을 내쉬고 눈물 흘리며) 네, 그냥 너무 좋아서요. 아빠랑 다시 차를 탈 수 있어서 좋았고, 이렇게 여기 다시 와서 좋고. 다…… 다…… 전부 다 좋아요.

대수 : 뭐?

아름 : (대수 품에 와락 안기며) 너무 좋아요. (울음이 완전히 터진 채로) 엉엉…….

경원고등학교 (부산)

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장면이 연결되고 있다.
② 장소의 변화에 따라 갈등이 해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③ 현재형으로 기술된 지시문을 활용하여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④ 암시적이고 비유적인 대사들을 활용하여 주제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특정한 공간을 주된 배경으로 설정하여 인물의 상황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경원고등학교 (부산)

5. 윗글을 영화화할 때, 감독이 연기자들에게 주문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S#59 : '미라'와 '대수'는 '아름'의 말을 들은 후 놀라며 마음 아파하는 표정을 지어야 합니다.
② S#59 : '아름'이 게임을 하는 부분에서는 부모를 안심시키려는 듯이 즐거운 표정을 지어 주세요.
③ S#61 : '미라'는 병실에 '아름'이 혼자 있을 것을 염려하고 있으니, 걱정스러운 말투로 말해야 합니다.
④ S#63 : '대수'는 앞서 뛰어가는 '아름'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는 모습을 보여 주세요.
⑤ S#63 : '아름'은 마음속 깊은 슬픔을 표현해야 하므로 통곡과 같은 울음을 터뜨리는 것으로 해 주세요.

경원고등학교 (부산)

6. [A]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여 갈등의 원인이 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해 주고 있다.
② 작품 밖의 내레이터가 개입하여 인물의 심리 변화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③ 특정 인물의 독백을 활용하여 다른 인물과의 갈등이 해소되는 양상을 부각하고 있다.
④ 동일한 인물이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심리가 변화하는 양상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대사 없이 인물의 행동만 제시하여 두 인물이 동일한 심리 상태임을 보여 주고 있다.

경원고등학교 (부산)

7. 다음의 시나리오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각각 서술하시오.

S#	
C.U.	
O.L.	
F.I.	
F.O	
E.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S# 16 병원 앞 거리(오후)

모자와 선글라스를 가렸어도 드러나는 아름이의 병색.

사람들이 미라와 아름이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또는 동정 어린 눈길로 힐끗댄다.

미라의 눈치를 보며 손을 잡아끄는 아름이.

하지만 생각에 잠긴 미라는 빨리 걸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아름 : 빨리 좀 가.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미라 : (㉠) 내가 너무 예쁜가 보지 뭐!

아름 : (손을 잡아끄는데 따라오지 않자 (㉡)) 엄만 창피하지 않아?

미라 : 뭐가?

태연한 미라가 짜증 나 손을 놔 버리는 아름이.

미라, 앞장서 가는 아름이의 배낭을 잡아챈다.

미라 : 뭐가 창피한데, 뭐가?

아름 : (뒷덜미 놓으랴 사람들 시선에 모자 눌러쓰랴 (㉢)) 왜 그래 진짜.

미라 : 넌 아픈 애야. 아픈 애가 왜 자꾸 딴 데 신경 써? 사람들이 보건 말건, 병원비가 있건 없건, 애처럼 굴어. 아프면 울고 떼를 쓰란 말이야. 그냥 애처럼!

아름 : 애처럼 안 보이니까 그렇지.

미라 : (선글라스를 벗기며) 연예인도 아니면서 이런 걸 쓰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지!

가슴이 답답한 미라, 고개를 돌려 한숨을 내쉰다.

괜한 말을 꺼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아름이는 땅만 발로 찬다.

(나) '서하'라는 이름의 여자 아이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하를 좋아하게 된 아름이는 그 애의 편지가 뜸해지자, 서하 걱정에 잠을 못 이룬다. 아름이는 병세가 점차 악화되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 그러던 어느 날 연출자와 미라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아름이는, 서하가 사실은 영화감독 지망생이고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 열여섯 살 소녀를 가장하여 자신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는다.

S#59 아름이의 병실(오후)

어둠 속에서 요란한 효과음 들려오며 페이드인(fade-in).

유혈이 낭자한 게임 속 세상. 아름이가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런 아름이를 걱정스레 바라보는 대수와 미라.

거친 말을 연발하는 아름이의 표정에 감정이라곤 없어 보인다. 식판을 든 미라. 조심스레 아름이에게 다가간다.

미라 : 밥 먹고 하지?

아름 : 이따 먹을게요.

미라 : 약 먹을 시간 지났잖아.

아름 : 금방 끝나요.

미라 : 벌써 두 시간째야. 그만하고 얼른! (게임기를 뺏으려 한다.)

아름 : 내버려 둬요, 좀!

게임기를 뺏기지 않으려다가 식판을 치고 만 아름이.

식판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나뒹군다.

그 소리에 복도를 지나던 사람이 아름이의 병실을 힐끔 쳐다본다. 미라, 주섬주섬 떨어진 음식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대수 :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아름 : (㉣) 그러니까 이따 먹는댔잖아요.

대수 : 너 그거 안 내려놔?

아름 : (㉤) …….

대수 : 아빠 말 안 들려!

아름 : (대수가 게임기를 뺏으려 하자) 왜 그래요, 진짜! 좀 내버려 두세요! (뿌리치며) 낫지도 않는 걸 왜 자꾸 먹으래! 어차피 죽을 거!

(다) S# 62 대수의 택수 안(저녁)

두꺼운 옷을 챙겨 입고 보조석에 앉은 아름이. 모자도 눌러썼다.

대수는 운전을 하면서도 연신 걱정되는 얼굴로 아름이를 쳐다본다.

아름이. 유리창에 기대서 밖을 바라본다.

유리창에 비친 아름이의 나이 든 얼굴.

내레이션 : 그 애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인서트(insert). 아름이의 병실.

Ⓐ전자 우편 창에 "누구세요?"라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다.

Ⓑ이내 "누구세요?"를 탁탁 삭제하고 대신 "안녕……."이라고 써넣는 아름이.

– 김애란 원작/최민석 외 각본, 「두근두근 내 인생」

권선고등학교 (경기)

8. ㉠~㉤에 들어갈 지시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주변을 의식하며
② ㉡ : 짜증을 내며
③ ㉢ : 정신이 없는 채로
④ ㉣ : 미안한 마음에 도리와 화를 내며
⑤ ㉤ : 게임에만 몰두하며

권선고등학교 (경기)

9. (다)의 밑줄 친 Ⓐ, Ⓑ에서 주인공이 보인 행동의 이유를 각각 서술하시오.

권선고등학교 (경기)

10. <보기>는 윗글을 소개하는 홍보 포스터이다. 학생이 <조건>에 맞게 홍보 포스터 내용을 작성했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조건>

- 윗글의 갈래적 특성을 담을 것
- 주요 인물의 성격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것

① 현재진행형 문학으로 각색된, 뜨거운 여름날처럼 당찬 부모와 포근한 봄날처럼 따뜻한 아들의 이야기!
②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많은 시나리오로 재탄생된, 세상에서 가장 늙은 아들과 가장 어린 부모. 그들의 이야기!
③ 인물의 말과 행동으로 실감나게 표현된, 하루하루 늙는 것이 전부였던 소년의 두근두근 새롭게 시작되는 이야기!
④ 서술자의 시선으로 새롭게 각색된, 사철 푸르른 나무같이 씩씩한 부모와 붉게 물든 낙엽같이 철든 아들의 이야기!
⑤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적은 시나리오로 재탄생된, 씩씩한 미라와 순박한 대수, 그리고 가슴 아프도록 어른스러운 아름이의 이야기!

권선고등학교 (경기)

11. (가)와 <보기>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병원 밖으로 나온 뒤, 슬쩍 어머니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엄마."

"응?"

"사람들이 우릴 봐요."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대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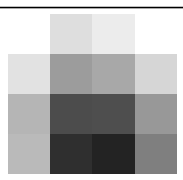
"내가 너무 예쁜가보지."

기미 낀 얼굴에 거만한 미소를 띠고서였다. 눈가에는 두껍게 칠한 파운데이션이 주름을 따라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었다. 어머니는 오래 일해 남자처럼 뼈마디가 굵어진 손으로 내 작은 손을 꼭 감싸 쥐었다. 그러고는 '이거 왜 이래? 나 열일곱에 애 낳은 여자야!'라는 태도로 꼿꼿이 걸어 나갔다. 남의 이목 따위 진작부터 신경 쓰지 않았다는 듯. 잘못한 게 없으니 도망치지 않겠다는 식으로 어머니는 나와 함께일 때 어디서든 서둘러 걷는 법이 없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을 텐데, 지하철이든, 재래시장에서든 당신 보폭을 지키며 자연스레 걸었다. 오히려 재촉을 하는 것은 내 쪽이었다.

① (가)와 <보기> 모두 배경 묘사와 심리 묘사가 나타나 있다.
② (가)는 <보기>와 달리 인물의 말이 다른 인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용되어 있다.
③ (가)는 <보기>와 달리 인물의 성격과 심리가 외양 묘사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④ <보기>는 (가)와 달리 두 인물이 갈등을 겪는 원인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⑤ <보기>는 (가)와 달리 주인공이 자신의 시선으로 자신과 주변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권선고등학교 (경기)

1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몽타주(서하와의 교신)
㉡인서트(insert). 푸른 하늘에 뭉게뭉게 떠 있는 하얀 구름.
아름(소리) : 푸른 하늘의 하얀 뭉게구름을 볼 때.
인서트(insert). 트램펄린 위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아름(소리) :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 나는 살고 싶어져.
인서트(insert). 햇살 아래, 빨랫줄에 걸려 있는 베갯잇. 나란히 누워 그 향기를 맡는 미라와 아름이.

① ㉠ 화면이 처음에 어둡다가 점차 밝아지는 촬영 기법
㉡ 한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 전환할 때 컷으로 바꾸는 촬영 기법

② ㉠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적절히 떼어 붙여서 하나의 긴밀하고도 새로운 장면으로 만드는 것
㉡ 장면과 장면 사이에 다른 장면이나 글자 혹은 사진을 끼워 넣는 것

③ ㉠ 장면과 장면 사이에 다른 장면이나 글자 혹은 사진을 끼워 넣는 것
㉡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적절히 떼어 붙여서 하나의 긴밀하고도 새로운 장면으로 만드는 것

④ ㉠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적절히 떼어 붙여서 하나의 긴밀하고도 새로운 장면으로 만드는 것
㉡ 한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 전환할 때 컷으로 바꾸는 촬영 기법

⑤ ㉠ 장면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장면의 진행에 따라 그 내용이나 줄거리를 장외(場外)에서 해설하는 것
㉡ 장면과 장면 사이에 다른 장면이나 글자 혹은 사진을 끼워 넣는 것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S# 18 아름이의 방, 집 앞 골목길(낮~밤)

서하(소리) : (귀여운 말투로) 안녕? 나는 이서하라고 해. 너랑 같은 나이야.

환청으로 아름이의 귓가에 자꾸만 반복되는 서하의 목소리.

아름이, 책상 앞에 앉았지만 집중이 되질 않는다. 그렇게 날이 바뀌어도 떠나질 않는 환청.

컷 투(cut to). 침대에 누워 있는 아름이. 밤이 되어도 귓가에서 떠나질 않는 서하의 목소리.

서하(소리) : (농염한 말투로) 안녕? 나는 이서하라고 해. 너랑 같은 나이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아름이. 눈 밑에 눈그늘이 내려와 있고 좀처럼 잠이 올 것 같지 않다.

컷 투(cut to). 집 앞 골목길의 아름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도는 목소리.

서하(소리) : (청순한 말투로) 안녕? 나는 이서하라고 해. 너랑 같은 나이야.

(나) ⓐS# 52 몽타주 (서하와의 교신)

인서트(insert). 햇살 아래, 빨랫줄에 걸려 있는 베갯잇. 나란히 누워 그 향기를 맡는 미라와 아름이.

아름(소리) : 맑은 날 오후, 엄마와 함께 햇빛을 머금은 포근한 빨래 냄새를 맡을 때도.

인서트(insert). 동네 구멍가게 앞. 텔레비전 연속극을 보며 눈물을 훔치는 아저씨.

아름(소리) : 무뚝뚝한 우리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가 연속극을 보며 우는 걸 보고 살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고…….

인서트(insert). 아름이가 나열하는 것들의 이미지가 아름답게 보인다.

아름(소리) : 저녁 무렵, 골목길에서 밥 먹으라고 손주를 부르는 할머니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도, 여름날 엄마가 아빠 등목을 해 주며 찬물을 끼얹는 걸 볼 때도 나는 살고 싶어져. 초승달이 뜬 초저녁에 아빠와 함께 초롱초롱한 금성을 보면서도, 반짝반짝 빛을 내며 야간 비행을 하는 비행기를 볼 때도 살고 싶어지고는 해. 서하야, 너는 어때?

(다) <중간 부분 줄거리 2>

㉠서하의 편지가 뜸해지자, 아름이는 서하 걱정에 잠을 못 이룬다. 아름이는 병세가 점차 약화되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 그러던 어느 날 연출자와 미라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아름이는, 서하가 사실은 영화감독 지망생이고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 열여섯 살 소녀를 가장하여 자신에게 전자우편을 보낸 것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는다. <중략>

S# 59 아름이의 병실(오후)

대수 : 너 그거 안 내려놔?

아름 : (게임에만 몰두한다.) …….

대수 : 아빠 말 안 들려!

아름 : (대수가 게임기를 뺏으려 하자) 왜 그래요, 진짜! 좀 내버려 두세요! (뿌리치며) 낫지도 않는 걸 왜 자꾸 먹으래! 어차피 죽을 거!

대수, 미라 : (㉡) …….

아름 : (봇물 터지듯이 말하며) 내가 지금까지 엄마, 아빠 말 안 들은 적 있어요? 그냥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겠다는데, (게임기 흔들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이거라고요. 왜 이까짓 것도 못하게 해요? 네?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중략>

(라) S# 61 아름이의 병실(다음날 오후)

침대에 누운 아름이, 침대 끝에서 짐을 챙기고 있는 미라, 그 옆에 서 있는 대수. 미라, 옷을 챙겨 입고 배낭까지 다 챙겼음에도 발걸음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다.

미라 : (아름이의 손을 잡으며) 엄마, 집에 좀 다녀올게. 잠깐 혼자 있을 수 있지? 심심하면 아빠 오늘 쉬라고 할까? 아니면 외삼촌이나 외숙모 중에…….

아름 : (창 쪽 바라보며, 고개 젓는다.) 괜찮아요.

컷 투(cut to). 침대에 걸터앉은 대수와 누워 있는 아름이. 부자는 서먹한 채 말이 없다. 4시를 향해 가는 시계. 대수, 일 나가기 전에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 아름이의 눈치를 본다. 그때 먼저 말을 거는 아름이.

아름 : 아빠…….

대수 : 응?

아름 : 아빠, 나 오늘 아빠랑 같이 다니면 안 돼? 하늘 공원에 별 보러 가고 싶어.

대수, 아름이를 안타깝게 본다.

– 최민석, <두근 두근 내 인생>에서

부평고등학교 (인천)

13.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설명하기'의 표현 양식으로 서술자가 배우의 행동과 대사로 표현한다.
② 이야기는 요약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성격과 사건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③ 관객은 객관적인 시선으로 등장인물들의 행동과 대사를 감상할 수 있다.
④ 사건은 과거와 현재의 반복적인 교차로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⑤ 주제는 대체로 갈등과 그 해결과정을 통해 드러내며 사건은 현재형으로 보여주고 있다.

부평고등학교 (인천)

1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아름'에게 삶에 설렘을 느끼게 했다.
② '아름'에게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켰다.
③ '아름'에게 이성에 대한 호기심을 느끼게 했다.
④ 아빠와 갈등을 유발하는 표면적인 이유가 되었다.
⑤ 투병 중인 '아름'의 일상적인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부평고등학교 (인천)

15. ㉡에 들어갈 지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아름'이를 꾸짖으며
② '아름'이의 손을 잡으며
③ 괴롭고 아픈 마음으로
④ 놀라 아무 말도 못 한 채
⑤ 미안한 마음에 화를 내며

부평고등학교 (인천)

16. (가)와 <보기>를 비교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나는 모니터 속 메일을 꼼꼼하게 다시 읽어 보았다. '안녕? 나는 이서하라고 해. 열일곱, 너랑 같은 나이야.' '네 속 시간들에 대해 내가 다른 이름을 붙여 주고 싶었어.' '여름에도 겨울이 있고, 가을에도 봄이 있대.' 그 아이의 목소리가 내 속에서 메아리쳐 자꾸 울렸다. 그래서 그 애 말대로 내가 정말 산이라도 된 기분이었다.

'같은 나이야, 같은 나이야…… 봄이 있대, 봄이 있대…….'

내 또래의 여자아이에게 그런 메시지를 받아 본 건 태어나 처음이었다. 남자아이였음, 그랬으면 달랐을까? 아마 달랐을 거다. 부끄럽지만 사실 그랬다. 그 아이는 왠지 여느 여자애들과는 달라 보였다.

– 김애란, <두근두근 내 인생>에서

① <보기>의 서술자는 자신의 생각, 감정 등을 서술하였다.
② (가)는 '서하'의 목소리가 환청으로 들리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③ (가)는 <보기>와는 달리 등장인물, 대사, 행동 등이 주된 구성 요소이다.
④ (가)와 <보기>는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⑤ (가)와 <보기>는 갈등을 중심으로 전달되며 그 사건은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평고등학교 (인천)

17. ⓐ장면에 사용된 몽타주 기법의 효과를 서술하시오.

4-(4) 수오재기

[1] 교술 갈래

개념	• '알려 주기'의 표현 양식 • 글쓴이의 경험이나 성찰을 바탕으로 하여 감동이나 교훈을 전달하는 문학의 한 갈래
종류	수필, 서간, 일기, 기행문 등
특성	• 다른 문학 갈래에 비해 글의 형식이 자유로움. •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 생각, 느낌 등을 직접 드러내는 방식으로 서술됨. • 자기 고백적이며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남.
구성 요소	글쓴이의 경험, 깨달음, 인생관, 가치관, 개성 등

[2] 한문 수필의 종류

논(論)	사리를 판단하고 논리를 세워 옳고 그름을 밝히는 글로, 지금의 논설문에 해당함. 논리를 세워 분석하는 것이 핵심임.
기(記)	여러 가지 사물에 관해 기술한 글.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하게 된 과정을 기록하여 교훈이나 깨달음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지님.
서(序)	사물의 발단과 끝맺음을 적은 글로, 서문(序文) 또는 서(敍)라고도 함.
설(說)	구체적인 사물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면서, 사물의 이치나 깨달음을 표현한 글

[3] 제재 정리

갈래	한문 수필, 기(記)	**성격**	자성적, 회고적, 교훈적
제재	'수오재'라는 집의 이름		
주제	참된 자아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		
특징	① 관념적인 '나의 마음'을 구체화하여 그것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글을 구성함. ② 자신의 과거를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전함.		

■ '　　'과 '나'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

천하만물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없거나, 세상에 무수히 많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잃어도 됨.**
'나'	쉽게 잃어버릴 수 있으며, 한번 떠나가면 돌아올 수 없음.		**굳게 지켜야 함.**

깨달음의 과정

가기 전	…	형님이 지은 '수오재'라는 이름에 의문을 품음.	…	'수오(守吾)'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함.
		↓		↓
귀양살이를 하면서	…	<수오재기>를 지어 큰형님께 보여 드림.	…	'수오(守吾)'의 의미를 이해함.

'자신을 지키는 것'의 의미

자신을 지키는 것 (수오) ⇨

- 자신의 본성을 온전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
- '나'의 생각이나 주관을 잃지 않는 것
- 세속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는 올바른 정신을 지키는 것

작품의 구성 요소와 전체의 유기적 관계

한문 수필 <수오재기>

[경험-깨달음의 구조]
자신의 과거를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전함.

[자이와의 대화]
대화 속에서 '나의 마음'의 상태를 자세히 제시함으로써 깨달음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남.

[성현의 명구 인용]
맹자의 말을 인용하여 글쓴이가 제시한 주장의 설득력을 높임.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수오재(守吾齋), 즉 '나를 지키는 집'은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며,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 보다 더한 게 없다.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라고 생각했다.

(나) 장기로 귀양 온 이후 나는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환히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집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동산의 꽃나무와 과실나무들을 뽑아 갈 수 있겠는가? 나무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다. 내 책을 훔쳐 가서 없애 버릴 수 있겠는가? 성현(聖賢)의 경전은 세상에 널리 퍼져 물과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내 옷과 양식을 도둑질하여 나를 궁색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될 수 있고,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내 양식이 될 수 있다. 도둑이 비록 훔쳐 간다 한들 하나둘에 불과할 터,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다 없앨 수는 없다. 따라서 천하 만물 중에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유독 이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며 출입이 무상하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혹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며, 질탕한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만 보아도 떠나간다. 그런데 한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는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니 꽁꽁 묶고 자물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다)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은 사람이다. 어렸을 때는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그 공부에 빠져 있었던 것이 10년이다. 마침내 조정의 벼슬아치가 되어 사모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고 백주 대로를 미친 듯 바쁘게 돌아다니며 12년을 보냈다. 그러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고 문경 새재를 넘어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 '나'도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내 발뒤꿈치를 쫓아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나는 '나'에게 말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왔는가? 바다의 신이 불러서 왔는가? 너의 가족과 이웃이 소내에 있는데, 어째서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라) 맹자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일인가? ⓐ<u>자신을 지키는 것이 큰일이다</u>."라고 하셨는데, 참되도다, 그 말씀이여!

드디어 내 생각을 써서 큰형님께 보여드리고 수오재의 기문(記文)으로 삼는다.

– 정약용, 「수오재기」

권선고등학교 (경기)

1. 윗글의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독자에게 교훈을 전하고자 한다.
② 다른 갈래에 비해 형식이 엄격하다.
③ 깨달음, 인생관, 개성 등이 드러난다.
④ 자신의 생각을 직접 말하는 방식이다.
⑤ 경험이나 내적 성찰을 바탕으로 한다.

권선고등학교 (경기)

2.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가)는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였다.
② (나)는 두 대상의 공통속성을 대비하여 우열을 가리고 있다.
③ (다)는 구체적 경험을 사용하여 주장의 신빙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④ (라)는 대상의 의미를 깨닫고 글을 쓰게 된 내력을 피력하였다.
⑤ 전체적으로 논리적 사유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서술방식을 취하고 있다

.

권선고등학교 (경기)

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나'는 '수오재'에서 홀로 지내다가 깨달음을 얻었다.
② '나'는 '수오재'라는 이름을 끝내 이상하다고 여겼다.
③ '수오재'는 큰형님이 글쓴이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④ '수오재'는 형님이 맹자의 글 속에서 인용한 이름이다.
⑤ '나'는 장기로 귀양 온 후에야 '수오재'의 의미를 깨달았다.

권선고등학교 (경기)

4. (나)에 제시된 소재 중 글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성격이 다른 것은?

① 집과 밭
② 동산의 꽃나무
③ 성현의 경전
④ 옷과 양식
⑤ 음악소리

권선고등학교 (경기)

5. ⓐ가 의미하는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신의 주관을 잃지 않는 것
② 세속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③ 자기 본성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
④ 꾸준히 공부를 함으로써 관직에 진출하는 것
⑤ 위험이나 무력 앞에서 올바른 정신을 지키는 것

권선고등학교 (경기)

6. 다음의 두 질문에 맞는 답을 서술하시오.

(1) (나)에서 글쓴이가 지켜야 하는 것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을 나누는 기준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조건>
• 기준을 2어절로 표현할 것
• '기준은 ~(이)다.'의 형식을 쓸 것

(2) 윗글에서 글쓴이가 보는 두 가지의 '나'에 관해 서술하고 어떤 '나'를 지킬 것을 주장하는지에 대해 밝히시오.

<조건>
• '~하는(~적인/~한) 나와 ~하는(~적인/~한) 나'의 형식으로 쓸 것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수오재(守吾齋), 즉 '나를 지키는 집'은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며,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라고 생각했다.

(나) ㉠장기로 귀양 온 이후 나는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환히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집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동산의 ㉡꽃나무와 과실나무들을 뽑아 갈 수 있겠는가? 나무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다. 내 책을 훔쳐 가서 없애 버릴 수 있겠는가? 성현(聖賢)의 경전은 세상에 널리 퍼져 물과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내 옷과 양식을 도둑질하여 나를 궁색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될 수 있고,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내 양식이 될 수 있다. 도둑이 비록 훔쳐 간다 한들 하나둘에 불과할 터,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다 없앨 수는 없다. 따라서 천하 만물 중에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은 없다.

(다) 그러나 유독 이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며 출입이 무상하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혹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며, 질탕한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만 보아도 떠나간다. 그런데 한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는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니 꽁꽁 묶고 자물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은 사람이다. 어렸을 때는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그 공부에 빠져 있었던 것이 10년이다. 마침내 조정의 벼슬아치가 되어 사모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고 백주 대로를 미친 듯 바쁘게 돌아다니며 12년을 보냈다. 그러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고 문경 새재를 넘어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 '나'도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내 발뒤꿈치를 쫓아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나는 '나'에게 말했다.

(라)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왔는가? 바다의 신이 불러서 왔는가? 너의 가족과 이웃이 소내에 있는데, 어째서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멍하니 꼼짝도 않고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안색을 보니 마치 얽매인 게 있어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는 듯했다. 그래서 '나'를 붙잡아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

이 무렵, 내 둘째 형님 또한 그 '나'를 잃고 남해의 섬으로 가셨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 함께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

(마) 유독 내 큰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하게 수오재에 단정히 앉아 계신다. 본디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 '나'를 잃지 않으신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 이름을 '수오'라고 붙이신 까닭일 것이다. 일찍이 큰형님이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의 자(字)를 태현(太玄)이라고 하셨다. 나는 홀로 나의 태현을 지키려고 서재 이름을 '수오'라고 하였다."

이는 그 이름 지은 뜻을 말씀하신 것이다.

맹자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일인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큰일이다."라고 하셨는데, 참되도다, 그 말씀이여!

드디어 내 생각을 써서 큰형님께 보여드리고 ㉤수오재의 기문(記文)으로 삼는다.

주엽고등학교 (경기)

7.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 : 다른 사람이 한 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② (나) : 자신에 대한 물음을 통해 삶의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③ (다) :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과거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④ (라) : 익명의 대상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있다.
⑤ (마) : 성현의 말을 인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주엽고등학교 (경기)

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관직에서 쫓겨나 귀양을 온 곳으로,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공간이다.
② ㉡ : 다른 사람이 탐내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지키기 어려운 것이다.
③ ㉢ : 자아의 본래적 모습과 마음에 평정을 잃게 하는 유혹의 대상이다.
④ ㉣ :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곳이자 자신이 처한 상황을 형상화한 공간이다.
⑤ ㉤ : 큰형님이 있는 곳으로 세속적인 현실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이다.

주엽고등학교 (경기)

9. 다음은 천하 만물과 '나'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을 정리한 것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조건 : ⓐ, ⓑ 각각 20자 이내로 쓰시오.)

천하 만물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없고, (ⓐ) → 따라서 지킬 필요가 없음.
'나'	쉽게 떠나갈 수 있으며, (ⓑ) → 따라서 꼭 지켜야 함.

주엽고등학교 (경기)

10. 윗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참된 '나'를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② 천하 만물 중 지켜야 할 대상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③ 성현의 경전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④ '나'라는 존재는 나와 단단히 맺어져 있어서 떠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었다.
⑤ 과거 벼슬아치가 되어 바쁘게 지내며 자신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은 사람이다. 어렸을 때는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그 공부에 빠져 있었던 것이 10년이다. 마침내 조정의 벼슬아치가 되어 사모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고 백주 대로를 미친 듯 바쁘게 돌아다니며 12년을 보냈다. 그러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고 문경 새재를 넘어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 '나'도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내 발뒤꿈치를 쫓아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나는 '㉡나'에게 말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왔는가? 바다의 신이 불러서 왔는가? 너의 가족과 이웃이 소내에 있는데, 어째서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멍하니 꼼짝도 않고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안색을 보니 마치 얽매인 게 있어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는 듯했다. 그래서 '㉢나'를 붙잡아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

이 무렵, 내 둘째 형님 또한 그 '㉣나'를 잃고 남해의 섬으로 가셨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 함께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

유독 내 큰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하게 수오재에 단정히 앉아 계신다. 본디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 '나'를 잃지 않으신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 이름을 '수오'라고 붙이신 까닭일 것이다. 일찍이 큰형님이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의 자(字)를 태현(太玄)이라고 하셨다. 나는 홀로 나의 ㉤태현을 지키려고 서재 이름을 '수오'라고 하였다."

이는 그 이름 지은 뜻을 말씀하신 것이다.

– 정약용, 「수오재기」 –

배화여자고등학교 (서울)

1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글쓴이의 경험, 가치관이 주된 구성 요소이다.
② 다른 문학 갈래에 비해 글의 형식이 정해져 있다.
③ 사물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④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난다.
⑤ 글쓴이가 자기의 생각을 독자에게 직접 말한다.

2018 배화여고 (서울)

12. ㉠~㉤ 중 의미가 다른 하나는?

① ㉠ ② ㉡ ③ ㉢
④ ㉣ ⑤ ㉤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오재(守吾齋), 즉 '나를 지키는 집'은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며,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라고 생각했다.

장기로 귀양 온 이후 나는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환히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집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동산의 꽃나무와 과실나무들을 뽑아 갈 수 있겠는가? 나무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다. 내 책을 훔쳐 가서 없애 버릴 수 있겠는가? 성현(聖賢)의 경전은 세상에 널리 퍼져 물과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내 옷과 양식을 도둑질하여 나를 궁색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될 수 있고,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내 양식이 될 수 있다. 도둑이 비록 훔쳐 간다 한들 하나둘에 불과할 터,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다 없앨 수는 없다. 따라서 천하 만물 중에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유독 이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며 출입이 무상하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혹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며, 질탕한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만 보아도 떠나간다. 그런데 한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는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니 꽁꽁 묶고 자물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은 사람이다. 어렸을 때는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그 공부에 빠져 있었던 것이 10년이다. 마침내 ㉡조정의 벼슬아치가 되어 사모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고 백주 대로를 미친 듯 바쁘게 돌아다니며 12년을 보냈다. 그러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고 문경 새재를 넘어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 '나'도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내 발뒤꿈치를 쫓아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나는 '나'에게 말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왔는가? 바다의 신이 불러서 왔는가? 너의 가족과 이웃이 소내에 있는데, 어째서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멍하니 꼼짝도 않고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안색을 보니 마치 얽매인 게 있어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는 듯했다. 그래서 '나'를 붙잡아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

이 무렵, 내 둘째 형님 또한 그 '나'를 잃고 남해의 섬으로 가셨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 함께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

유독 내 큰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하게 수오재에 단정히 앉아 계신다. 본디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 '나'를 잃지

않으신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 이름을 '수오'라고 붙이신 까닭일 것이다. 일찍이 큰형님이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의 자(字)를 태현(太玄)이라고 하셨다. 나는 홀로 나의 태현을 지키려고 서재 이름을 '수오'라고 하였다."

이는 그 이름 지은 뜻을 말씀하신 것이다.

맹자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일인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큰일이다."라고 하셨는데, 참되도다, 그 말씀이여!

드디어 내 생각을 써서 큰형님께 보여드리고 수오재의 기문(記文)으로 삼는다.

– 정약용, '수오재기(守吾齋記)'

부평고등학교 (경기)

1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묻고 답하는 방식의 서술을 통해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②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삶의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③ 관념적 대상을 객관화하여 대화함으로써 자신의 의문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④ 대조적 대상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대상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⑤ 성현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 있다.

부평고등학교 (경기)

1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의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신유박해(1801년) 이후 다산은 18년에 걸친 유배 생활을 하게 된다. 이때 그의 나이 40세였다. 외견상 그의 인생은 끝났다. 어떤 희망도 없었다. 그런데 오히려 다산은 지나간 40년의 인생이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시간임을 홀연 깨닫는다. 이제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런 깨달음은 지독한 고통과 고독과 자기 응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참된 나로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 답을 향해 가는 과정이 이후 그의 삶기도 하다.

– 박혜숙 옮김, <다산의 마음>에서

① 글쓴이는 ㉠이 갖는 의미를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게 된다.
② 글쓴이는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고 ㉡으로 살았던 지난 날의 잘못을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③ ㉢은 글쓴이가 지독한 고통, 자기 응시 속에서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한 과정이다.
④ ㉣은 오랜 유배 생활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글쓴이의 자괴감이 표출된 결과이다.
⑤ ㉤은 자신의 본성을 유지하면서 참된 '나'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부평고등학교 (경기)

15. <보기>에서 ㉮의 속성에 해당하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외부의 유혹이나 위협에 쉽게 흔들린다.
ㄴ. 철저한 자기 수양을 통해서만 지킬 수 있다.
ㄷ. 현상적 자아와 분리될 수 없는 참된 본성이다.
ㄹ. 잃어버리기는 쉬우나 다른 것으로 대체 가능하다.
ㅁ. 속세를 떠나 자연으로 돌아가야만 발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오재(守吾齋), 즉 '나를 지키는 집'은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며,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라고 생각했다.

장기로 귀양 온 이후 <중략>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집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동산의 꽃나무와 과실나무들을 뽑아 갈 수 있겠는가? 나무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다. 내 책을 훔쳐 가서 없애 버릴 수 있겠는가? 성현(聖賢)의 경전은 세상에 널리 퍼져 물과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내 옷과 양식을 도둑질하여 나를 궁색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될 수 있고,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내 양식이 될 수 있다. 도둑이 비록 훔쳐 간다 한들 하나둘에 불과할 터,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다 없앨 수는 없다. 따라서 천하 만물 중에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은 없다.

의 뒤에서 (4) 비음 'ㄴ'으로 변하는 (5) 비음화 현상이다. 32.④ 33.① 34.④ 35.④ 36.② 37.⑤ 38.첨가 39.신고, 갑자기, 왔다 40.④ 41.② 42.④ 43.② 44.③ 45.① 46.⑤ 47.② 48.④ 49.① 50.② 51.② 52.③ 53.④ 54.③ 55.① 56.⑤ 57.① 58.⑤ 59.⑤ 60.⑤ 61.③

3-(2)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

1.① 2.④ 3.⑤ 4.③ 5.④ 6.② 7.⑤ 8.샅샅히→ 샅샅이, 나뭇가지→나뭇가지, 싹뚝싹뚝→ 싹둑싹둑, 회전률→ 회전율, 촛점→ 초점 9.⑤ 10.② 11.① 12.백분률→ 백분율, 댓가→ 대가, 쐐어야→ 쐐야(쐬어야) 13.② 14.⑤ 15.③ 16.⑤ 17.④ 18.⑤ 19.(1)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 (2) ㉡ 빗물, 아랫마을 ㉢ 뒷일, 깻잎 20.④ 21.② 22.수만마리가→수만 마리가, 선율→선율, 몹시→몹시, 않은 체→않은 채, 안된다→안 된다. 23.④ 24.③ 25.③ 26.④ 27.① 28.(1)어름→얼음 (2)어간에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기 때문에 '얼음'으로 표기해야한다. 29.꺼져가는 불꽃처럼 사라질 것인가, 주사위를 한 번 더 던져 볼 것인가. 30. (1) 황금율→황금률: '렬/률'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오면 '열/율'로, 'ㄴ'이 아닌 받침 뒤에 오면 '렬/률'로 적는다. (2)우유빛→우윳빛: 합성어를 이룰 때 뒷말이 된소리로 발음되면 사이시옷을 적는다. 31.(1)열일곱 살, 수는 만 단위로 띄어 쓰며, '살'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2) 쓰는데, '-는데'는 연결어미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32.④ 33.① 34.⑤ 35.① 36.① 37.운동한∨만큼∨좋은∨결과를∨얻기를∨바랐지만∨일등은커녕∨꼴찌를∨했다 38.1) 머거→ 먹어, 용언은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2) 여기에서 부터→ 여기에서부터,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39.⑤ 40.⑤ 41.④ 42.㉠누나의 해쓱한 모습에 어머니께서도 걱정이 되셨나봐. ㉡누나, 짭짤한 음식은 몸에 해로워. ㉢어머니의 정이 듬뿍 담긴 반찬을 먹고 힘을 내길 바라. 43.② 44.② 45.잇몸-(4), 대가-(6) 46.뭉둥그려→뭉뚱그려:㉡, 씁슬한→씁쓸한:㉢ 47.④ 48.④ 49.③ 50.③ 51.② 52.③ 53.⑤ 54. (1)도라간다→돌아간다 (2)두 용언이 어울려 하나의 용언이 된 경우 앞말의 본래 의미가 유지되고 있으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 55.② 56.⑤ 57.줄넘기를∨시작한∨지∨이틀째인데∨겨우∨열∨개를∨할∨뿐이다. 58.⑤ 59.① 60.③ 61.④ 62.③ 63.① 64. ㄱ. 되요→돼요 ㄷ. 뵈요→ 봬요 ㄹ: 순대국→ 순댓국 65.②

3-(3)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이란 무엇인가

1.⑤ 2.② 3.① 4.④ 5.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6.①

4-(1) 향수

1.④ 2.② 3.④ 4.① 5.④ 6.(1) 가난하고 힘겨운 삶, (2) 희망, (3) ⓑ, ⓒ 7.① 8.④ 9.③ 10.② 11.③ 12.⑤ 13.③ 14.④ 15.③ 16.㉠ '~는/ 던 곳', 후렴구 ㉡ 각 연의 끝, 연과 연 사이 17.③ 18.② 19.한밤중 문밖으로 들리는 '밤바람 소리'(청각)를 사람이 '말을 달리고' 있는 모습(시각화)으로 표현한 것으로 청각의 시각화가 나타난다. 20.④ 21.④ 22.③ 23.④ 24.⑤ 25.④ 26.② 27.윗글에서 후렴구를 통해 얻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집약적으로 제시한다. 둘째, 형식적 측면에서 주기적인 반복을 통해 통일감을 준다. 셋째, 리듬감 형성에 기여한다. 28.③ 29.⑤ 30.③ 31.④ 32.③ 33.② 34.② 35.③ 36.⑤ 37.① 38.③ 39.첫째, 연의 구분 및 시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한다. 둘째, 운율을 형성한다. 40.⑤ 41.⑤ 42.⑤ 43.ⓐ금빛 게으른 울음,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자식의 죽음으로 인한 외로움과 유리창을 통해 아이의 영상을 본 황홀한 감정이 복합적으로 느끼고 있다. 44.① 45.④ 46.(1)'~는/던 곳'과 같은 유사한 통사 구조 반복, 후렴구의 반복 (2)연과 연을 구분한다.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한다. 운율을 형성한다. 시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한다. 47.④ 48.③ 49.② 50.㉠에서는 청각의 시각화가 드러난다. 51.설의법이 쓰였으며, 반복으로 인해 운율이 형성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강조한다.

4-(2) 종탑 아래에서

1.① 2.⑤ 3.종소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울리는 구원의 소리를 의미한다. '나'는 백마를 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칡넝쿨'에 대응하며, 명은은 필요가 없다고 버림받는 존재인 '백마'에 대응한다. 4.② 5.⑤ 6.② 7.⑤ 8.③ 9.③ 10.(1) 어린 아이인 '명은'이 전쟁에서 부모를 잃은 충격에 눈이 먼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한국 전쟁의 참혹성과 폭력성이 더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2)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11.④ 12.④ 13.③ 14.② 15.② 16.① 17.㉮ 나, ㉯ 명은, ㉰ '나'와 '명은'이 종을 울리는 결말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18.④ 19.① 20.② 21.⑤ 22.② 23.①② 24.(1)

명은, (2) 한국 전쟁으로 '명은'이 부모를 한꺼번에 잃은 충격으로 눈이 멀게 된 것, (3) 나, (4) 하늘 25. 윗글에서 '나'는 '명은'이 종을 쳐서 소원을 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수난이대'에서 외팔이인 아버지 '만도'는 외다리가 된 아들 '진수'를 업고 외나무다리를 건넌다. '나'와 '만도'는 인물이 처한 슬픔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26.④ 27.③ 28.③ 29.⑤ 30.④ 31.② 32.② 33.④ 34.⑤ 35.③ 36.③ 37.④ 38.② 39.① 40.① 41.④ 42.ⓐ : 익산이라는 후방의 마을에 사는 순수한 아이에게까지 전쟁의 피해가 미친다는 것을 통해 전쟁이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 ⓑ : 인간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통해 치유할 수 있다. 43.③ 44.② 45.⑤ 46.④ 47.② 48.⑤ 49.④ 50.(1) 당시의 상황을 실감 나게 재현하여 현장감을 높인다. (2) 전쟁의 참혹성과 폭력성이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3) 내용의 긴밀성을 높이고 결말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51.① 52.⑤ 53.⑤ 54.① 55.ⓐ 선물 보따리 ⓑ 무섭고 두려운 것 56.④ 57.⑤ 58.④

4-(3) 두근두근 내 인생

1.④ 2.⑤ 3.<보기>의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서사 갈래와 극 갈래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은 내용이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이다. 차이점은 서사 갈래는 서술자를 통해 사건을 전달하고, 극 갈래는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을 관객에게 보여준다는 점이다. 4.④ 5.② 6.⑤ 7.S# 장면 번호, C.U.(Close Up) 어떤 대상이나 인물이 두드러지게 화면에 확대되는 것, O.L.(Over Lap)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먼저 화면이 차차 사라지게 하는 기법, F.I.(Fade In) 화면이 차차 밝아짐, F.O.(Fade Out) 화면이 차차 어두워짐, E.(Effect) 효과음으로 주로 화면 밖에서의 음향이나 대사에 의한 효과를 말함. 8.① 9.Ⓐ는 '아름'이 자신을 속인 서하에게 묻고 싶은 말이다. Ⓑ는 자신에게 소중한 기억과 감정을 느끼게 해 준 '서하'의 존재를 인정하려는 '아름'의 마음을 보여준다. 10.① 11.⑤ 12.② 13.⑤ 14.④ 15.④ 16.⑤ 17.ⓐ에 '몽타주 기법'으로 '아름'이 살고 싶어지는 때를 영상으로 제시함으로써 내용을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일상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생각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18.④ 19.③. 20.③ 21.(1) 몽타주, (2) 내용을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다. 22.긍정적 측면 : 투병 중인 '아름'이 이성에 대한 설렘과 삶에 대한 의욕을 느끼게 한다. 부정적 측면 : '아름'이 '서하'의 정체를 알고 상처를 받으며 배신감을 느낀다. 23.② 24.④ 25.(1) 윗글은 배우의 행동, 대사 등을 보여줌으로써 사건이 전개된다. 이에 비해 <보기>는 서술자를 통해 사건이 전달된다. (2) 윗글에서는 인물의 행동, 대사 등을 보여줌으로써 인물의 심리를 제시한다. '아름'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태블릿 피시를 꺼내는 행동을 보여주어 '서하'의 답장을 기다리는 초조한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3) <보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가 자신의 심리에 대해 직접 말하고 있다. '내가 정말 산이라도 된 기분이었다, 부끄럽지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6.② 27.③ 28.⑤ 29.② 30.① 31.③ 32.④ 33.③ 34.② 35.ⓐ몽타주 ⓑ인서트 ⓒ디졸브 ⓓ페이드 인 ⓔ내레이션 36.① 37.② 38.① 39.⑤ 40.③ 41.④

4-(4) 수오재기

1.② 2.② 3.⑤ 4.⑤ 5.④ 6.(1) 대체 가능성, (2)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현상적인 '나'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본질적인 '나' 두 가지 '나' 중에서 본질적인 '나'를 지킬 것을 주장하였다. 7.④ 8.② 9.ⓐ 대체가 가능함, ⓑ 한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모름. 10.② 11.② 12.① 13.⑤ 14.④ 15.① 16.① 17.⑤ 18.③ 19.④ 20.① 21.[A] 아라비아의 사막, [B] 열렬한 고독, [C] 운명처럼 대면하게 된 '나' 22.⑤ 23.⑤ 24.① 25.③ 26.② 27.① 28.⑤ 29.③ 30.② 31.③ 32.① 33.④ 34.④ 35.⑤ 36.③ 37.③ 38.⑤ 39.③ 40.④ 41.⑤ 42.[A]는 글쓴이의 또 다른 자아와 대화하는 형식을 통해 글을 전개하고 있다. 43.[B]는 참된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제의 근거로 성현인 맹자의 말을 인용하여 글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5-(1) 매체 자료, 어떻게 읽어야 할까

1.② 2.⑤ 3.① 4.② 5.⑤ 6.③ 7.'후광의류'의 옷을 구입하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말함으로써, 소비자가 이 회사의 옷을 구매하도록 설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8.① 9.① 10.④ 11.④ 12.① 13.⑤ 14.②

5-(2) 나와 지구를 위해 손수건을 사용합시다

1.② 2.① 3.④ 4.(1) 목적 : 수행 평가 과제 제출 시기의 분산하도록 설득하기 위함. (2) 예상독자 : 교장